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教育學碩士學位論文

일제하 新義州 木材業界의 변동과 木材商組合의 활동(1910~1936)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李 美 璟

일제하 新義州 木材業界의 변동과 木材商組合의 활동(1910～1936)

指導教授　金　泰　雄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 년 8 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李　美　璟

李美璟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6년 8월

委 員 長 _____(印)

副委員長 _____(印)

委　　員 _____(印)

國文抄錄

신의주는 목재의 도시였다. 1907년 영림창이 설립된 이래 일본인 자본의 투자와 인구 유입이 증가하였던 것 자체가 압록강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 신의주에 집재하는 목재 때문이었다. 동시에 신의주는 경의선 부설을 시작으로 목재 자원의 수송을 위한 철도와 교통이 일찍이 발달한 국경의 요충이었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자 일본인 대자본은 압록강 일대의 삼림 자원에 더욱 주목하였다. 영림창도 또한 관용 수요의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으로 점차 직영의 제재소를 늘려 나갔다. 왕자제지 조선공장은 영림창 벌채량의 절반을 선점하였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불하되어야 했으나 영림창 제재 사업의 확장 추세 속에 민간 제재공장의 자재로 공급될 목재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이를 배경으로 민간업자들은 직접 목재를 벌채하거나 유벌하는 데에도 참여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에 힘입어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신의주의 민간 목재상은 꾸준히 상세를 키웠고 제재업자 또한 생산능력을 신장시키며 관영인 영림창과 생산단가의 격차를 좁혀갔다.

본 논문은 영림창의 생산에 대치하고 조선총독부의 삼림 지배 정책에 대응하면서 성장한 신의주의 목재업 발전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신의주의 산업 중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였던 목재·제재업이라는 개별 산업사의 연구 작업을 통해 근대 도시 신의주의 역사상에 다가가며 도시 전체의 자본주의 성장 과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을 기점으로 일제강점기 초기와 만주국 수립 이후라는 두 시기로 나누어 신의주의 민간 제재업계의 각종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관련 업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인 제재업 자본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목재 및 제재 생산능력이 조선 내의 자급자족을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던 1920년대 후반에 그간 무관세의 특례가 적용되었던 중국 안동의 수입 목재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과 신의주

의 관련 업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쏟은 노력이 부합한 결과였다. 안동 목재의 수입 증가로 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압록강산 목재가 경쟁력을 잃고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주국 수립 이후 관세 개정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만주국 건설 수요의 급증으로 조선이 대만주 원목 공급 기지로 변모하자 자재를 구할 수 없었던 제재업계와 공급 물량 부족을 겪은 목재상들이 다같이 반발하였다. 이 시기 만주국 관세를 일본 본국과 같이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던 신의주 상공회의소의 주도 세력은 목재 관련업의 자본가들이었다.

한편 영림서의 중앙집권적 사업관행이 영림서 제재부의 제 4공장 설립으로 이어지자 신의주 목재상조합은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한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앞서의 특례 폐지 운동 단계에서 반대로 맞섰던 안동의 목재계도 보조를 맞출 정도로 영림서 위주의 목재 공급은 반(半) 독점에 가까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운동의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한 신의주의 민간 목재업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 수호를 위한 상업단체로서 신의주 목재상조합을 비롯한 동업자조직을 설립하였다.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영업세 납부액이나 자본금 규모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일본인 자본가들이었다. 조선인 영세 공장은 단지 이들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으며 목재 및 제재업의 성장의 결실 역시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1920년대 후반까지도 조선인 소유의 제재공장은 설립을 볼 수 없었고 1930년대 초에야 하나 둘씩 설립되어 갔다.

목재 자원 개발을 계기로 하여 급설된 도시로서 신의주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였다. 그러나 벌채에서부터 제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존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렸다. 식민지의 산업 조건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와 차별을 받았으며 국경도시의 특성상 다수가 유입되었던 중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열악하였다.

풍부한 삼림자원 및 편리한 교통과 수운, 대량으로 공급되는 저렴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신의주의 목재·제재업은 일제강점기 초부터 신의주 재계를 이끌었다. 조선공업화의 과정에 이어지며 목재의 전시 수요가 부각되었던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인 대자본은 영세한 조선인 공장을 규합하는 통폐합을 거쳐 대규모 공장으로 도약하였다.

주요어 : 신의주, 압록강, 제재업, 영림창(영림서), 목재상조합, 목재 관세
학 번 : 2012－21392

차 례

국문초록

1. 序 言 ····· 1

2. 신의주 木材·製材業의 실태와 민간 제재회사의 성장 (1910 ~ 1931) ····· 4
   1) 營林廠의 설립과 관영 제재업의 성장 ····· 4
   2) 민간 제재회사의 설립과 자재난 문제 ····· 16
   3) 목재 관세 특례 폐지 운동 ····· 26

3. 民間 製材業의 추이와 新義州 木材商組合의 활동 (1931 ~ 1936) ····· 32
   1) 만주국 수립 이후 민간 제재업의 추이 ····· 32
   2) 木材商組合의 활동과 일본인 자본의 독점 ····· 41

4. 結 語 ····· 56

參考文獻 ····· 61

附錄 ····· 65

Abstract ····· 71

表 次 例

<표 1> 1910~1925년 영림창 입목처분고 ····· 7

<표 2> 영림서 벌채고 ····· 9

<표 3> 영림창 유벌사업 ····· 10

<표 4> 영림창/영림서 제재사업 ····· 13

<표 5> 영림창/영림서 매각재 상황 ····· 14

<표 6> 1921~1930년 신의주부 목재회사 현황 ····· 17

<표 7> 목재 유하 도착 수량 ····· 23

<표 8> 1926~1929년 제재업 생산 수량 ····· 24

<표 9> 1932~1936년 신의주(조선측) 착벌고 ····· 34

<표 10> 신의주항 목재 수이출입 가액(1934~1936, 3개년) ····· 39

<표 11> 1937년 신의주 목재상공업회사 영업세 납부액 순 ····· 41

<표 12> 1934~1936년 신의주부 주요 공산품(3개년 간) ····· 49

<표 13> 1932~1939년 신의주 제재업 직공수 구분별 공장 수 ····· 51

<표 14> 신의주 제재공·제지공의 민족별 일일 임금 비교 ····· 54

<부표 1> 신의주 민간제재공장 현황(1910~1931년) ····· 65

<부표 2> 신의주 민간제재공장 현황(1932~1938년) ····· 67

<그림 1> 영림창 사업 과정 ····· 6

1. 序言

국경 도시 신의주는 압록강에 접하고 있으며 의주로부터 약 30里(12㎞), 압록강 입구에서는 약 12海里(22㎞) 지점에 소재한다. 눈앞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회군하였던 위화도가 있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는 중국 요령성의 안동현과 마주하고 있다. 20세기 초까지 義州府의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한촌으로 진흙벌판 황무지에 불과하였던 신의주는 1905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경의선 철도를 급설한 뒤 짧은 시일 안에 큰 도시로 발전하였다.[1] 신의주는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이었다.[2]

이처럼 신의주가 일제 강점 초기에 주요 역참으로 성장하고 인구 이입이 증가하였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압록강 산 목재의 발송지였다는 점이다.[3] 원래 평안북도의 임야는 대체로 조선 전 면적의 약 8할을 차지하였고 그 중 성림지의 대부분이 압록강에 속해 있었다. 원생 우량림이 울창하여 나무의 바다라 불렸던 압록강 연안의 삼림지대[4]는 재목이 풍부하고 목재의 양이 막대한 것으로는 그 삼림자원이 단연 세계의 보배라 할 만하였다.[5]

1908년에 영림창이 신의주에 세워지면서 일본인, 조선인 그리고 중국인의 내주가 늘어 목재 매매와 상거래가 활발해졌다. 영림창이 산업 생산에 필요한 목재의 공급을 담당한 이후 1923년 12월의 평안북도청의 신의주 移轉으로 국유림 지대의 풍부한 목재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

---

1) 일제 강점 당시 지방행정제도에 의하면 평안북도에는 2府 19郡이 있었다. 2府는 義州府(관찰부 소재지)와 龍州府(용암포)였다; 칙령 제50호, 「地方官官制改正件」, 『고종실록』 47권, 고종 43(1906)년 9월 24일;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신의주는 1913년 부제 실시로 부로 지정되었다. 제령 제7호, 「府制」, 1913년 10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 제376호, 1913년 10월 30일.

2) 『東亞日報』 1926년 9월 17일, 「半島의 咽喉요 東洋의 要衝」.

3)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1일, 「平北의 産業, 農·工·商·畜·林·鑛」.

4) 조선산림회, 임경빈 역, 『朝鮮林業史(上)』, 한국임정연구회, 산림청, 2000, 823쪽; ; 『朝鮮林業史』는 1941년에 조선총독부의 관변단체인 조선산림회(1921년 설립)가 펴낸 官撰物(주도자는 岡衛治)로 上卷에서 주로 압록강 유역 벌채사업과 유벌을 다루고 있다. 배재수, 「〔조선임업사〕를 넘어」,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5(2). 1997, 89-94쪽.

5) 『개벽』, 위의 기사, 1923년 8월 1일.

다.[6] 그리고 신의주의 산업 발전에서 일본인의 자본 투자와 공장 설립은 그에 선행한 영림창의 관영 벌목 및 제재사업 확장과 궤를 같이 하였다.

일제강점기 신의주 발전의 중추이자 토대를 이루었던 목재·제재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목재업에 대한 관심이 낮기도 하거니와 아직까지 도시 발달사와 산업사 연구를 별도의 과제로 여기는 문제의식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목재업과 매우 밀접한 일제강점기의 임야제도 및 목재수급의 추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어 목재업의 성장 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7] 아울러 영림창 연구는 있었으나 영림창의 생산 현황을 깊이 다루지 못한 상황이었다.[8]

이에 본고는 신의주가 목재업을 근간으로 삼아 개발되어 가는 과정을 개별 사례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점을 목재·제재업의 발전과정의 분석에 두고 그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도시형성이 시작되었던 신의주 경제의 성장을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아울러 영림창 사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對峙하면서 발전해 간 신의주의 목재·제재 관련 민간업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연구 대상 시기로는 중·일 전쟁이 발발하여 전시경제에 편입되기 직전인 1936년까지로 한정하였다. 1937년 이후는 목재가 전시 중요 품목이 되는 통제 경제하로 들어가는 시기로서 별도로 다루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목재는 건축과 각종 공사의 자원이고 신의주는 조선 목재를 대표하였던 압록강 산 목재의 집산지로서 영림창 본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영림창

---

6) 조선총독부령 제126호, 「평안북도 위치 신의주」, 1923년 11월 7일, 『朝鮮總督府官報』 제3371호, 1923년 11월 7일 ; 平安北道敎育會 編, 『平安北道鄕土誌』, 1933, 105쪽.

7) 이와 관련한 대표 연구로서 방대한 국유림을 국유 및 일본인 소유로 돌리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일제의 산림정책을 논증한 姜英心, 「日帝시기 戰時(1937년~1945년) 林政하에서의 삼림수탈」,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102, 1998; 裵在洙, 「삼림법(1908)의 地籍申告制度가 일제의 식민지 임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90(3), 2001; 강정원, 「일제 임야조사사업기 김해지역의 국유림 분쟁」,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22, 2008 및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목재 이용 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裵在洙,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38, 2005,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단행한 국유림 증벌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로서 최병택,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임업 동원책과 삼림자원 공출」,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32, 2008이 있다.

8) 강영심, 「일제 영림창의 삼림 수탈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22, 1995.

과 민간 제재업자의 대립·갈등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은 신의주 목재업 발전의 구조 분석을 위한 토대이다. 또한 신의주에서 양적·질적으로 가장 수위에 있었던 목재·제재업에 관한 개별 산업사는 신의주 전체의 근대 자본주의 성장과정의 역동성과 근대 도시 신의주의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산업 사례로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만주국 수립 이후 일제가 만주 침략의 교두보로 삼게 되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신의주에서 목재 수출입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구사한 관세정책을 통해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반기의 영림창 사업의 전개와 그에 병행한 민간 자본의 목재 생산과 판매의 변천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더불어 신의주 내 목재상공업의 경기 변천과 무역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재업계 보호를 바라는 신의주부내 영업자들이 전개한 목재관세 특례 폐지 운동이 어떤 양상이었으며 만주의 일본인 자본가들과는 어떻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전개되어 갔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 목재의 만주 유출이 긴급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 변화에 유의하여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영향 아래 신의주 제재업계가 어떻게 재편되어 갔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의주목재상조합을 위시한 동업조합을 구성한 목재·제재업 자본가들의 활동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논문 작성의 주된 자료는『新義州大觀』및 신의주상공회의소 편찬 자료들과『조선총독부통계연보』,『韓國近代林政史』등 각종 관찬 자료 및 인명 자료와 신문자료들이다. 자료를 편찬한 기관에 따라서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의 조선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이면에 존재하였음을 염두에 두었다.

2. 신의주 木材·製材業의 실태와 민간 제재회사의 성장(1910～1931)

1) 營林廠의 설립과 관영 제재업의 성장

압록강 유역 지대의 삼림은 전근대에도 고려와 조선 국가의 벌채의 대상이었다. 고려시기에 佛事를 위한 건축용재를 伐出[9]하였고 조선 시대에도 船艦材의 결핍 때문에 대규모 벌출을 자주 행하였으며 때때로 兵船의 중요성을 들어 소나무 벌채를 금하였다.[10] 그러나 압록강 유역의 산림자원을 운송하기 위한 내륙 수운이 발달하지 못하여 목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11] 그러므로 북부지방 국유 산야지대의 벌채가 본격화되고 대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統監部 營林廠이 開廳한 1907년 5월이었다.[12] 이에 인구 2천을 다소 웃돌던 신의주가 목재 벌채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여 의주에 있던 도청도 이전해 오게 되었고[13] '木都'라고 불릴 만큼 목재산업이 발달하였다.[14]

---

9)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편, 생명의숲국민운동 역주,『조선의 임수』, 지오북, 2007, 784～790쪽; 벌출은 베어진 나무를 이동하는 일 혹은 제재, 즉 벌채한 원목을 판재, 각재 등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10)『성종실록』68, 성종7(1476)년 6월 5일;『영조실록』114, 영조46(1770)년 2월 7일;『정조실록』16, 정조7(1783)년 11월 10일.

11) 배재수,「조선전기 국용 임산물의 생산지」, 한국임학회,『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2004(0), 2004.

12) 영림창 연혁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營林廠 編,『朝鮮總督府營林廠事業要覽』, 1912; 朝鮮總督府營林廠,『營林廠事業報告』, 1923.

13) 孫禎睦은 '소리 없이 진행된 평북의 도청이전' 사유에 대하여 1. 이미 신의주로의 도청 이전이 기정사실화되었던 점, 2. 신의주 거주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원래 의주 출신이었다는 점, 3.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해인 1923년에 도청이전이 큰 이슈가 될 수 없었다는 점 및 4. 당시 잦은 무장독립단의 출현으로 도청 이전 문제가 국내 거주 조선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4항의 원인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신의주의 인구 유입 및 부제 실시를 통한 도시발전 과정을 볼 때 위 1항의 사유가 신의주로의 도청이전이 도민의 거센 반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데 보다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 孫禎睦,「日帝强点期의 道廳移轉 : 過程과 結果, 1 : 京畿·咸北·平北道廳의 移轉」,『서울市立大學校 論文集』18, 1984, 81~93쪽.

14) 新義州商工會議所,『新義州商工要覽』, 1942, 8쪽.

영림창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조선 측에 속한 2백여만 정보의 광대한 삼림을 관할하는 일본의 特設官廳으로서 신의주 목재업의 중추였다. 그 前身은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1905년 10월에 러시아가 경영하던 것을 인수하여 임시로 편성하여 安東에 세운 軍用木材廠이었다.[15] 북경조약이 체결되면서 압록강 좌안, 즉 조선 측의 삼림이 日·淸 兩國의 공동경영이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06년 10월 "압록강 두만강 삼림경영에 관한 협동약관" 조인 당시 산림 경영사업의 초기 자본금을 백이십만 원으로 정하고 각기 반액인 60만원을 분담하여 압록강 좌안에 출장소 3個所를 설치하였다.[16] 이후 조선 통감 직속 기관인 통감부 영림창[압록강 좌안][17]과 대한제국 정부가 관제로 정한 西北營林廠[두만강 우안][18]이 목재창(필자 주－군용목재창이 러·일전쟁 승리 후 목재창으로 改稱)으로부터 삼림경영을 넘겨받았다가 강제병합 이후에는 朝鮮總督府營林廠으로 변경되었다.[19] 영림창에 관한 사항은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일부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농림국에 둔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었다.[20]

영림창은 한편으로 원목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영으로 제재사업을 수행하였다. 벌채에서 생산품 매각에 이르는 영림창 사업 과정을 순서대로 파악하면 <그림 1>과 같다.

---

15)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 39-1 사항 18, 「鴨綠江營林關係雜篇」; 淸側 鴨綠江 右岸을 경영하는 鴨綠江採木公司(자본금 北洋銀 3백만 圓)가 日淸合同材木會社로서 1908년 9월에 安東에 설립되었다. 안동은 신의주의 對岸으로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과 함께 신의주와 더불어 압록강 목재 집산지로 성장하였다. 佐藤正二郎 編, 『安東縣及新義州』, 圖書普及會, 1917, 221쪽.

16) 『고종실록』 47권, 광무 10(1906)년 10월 19일; 『관보(구한국)』 광무 10년 10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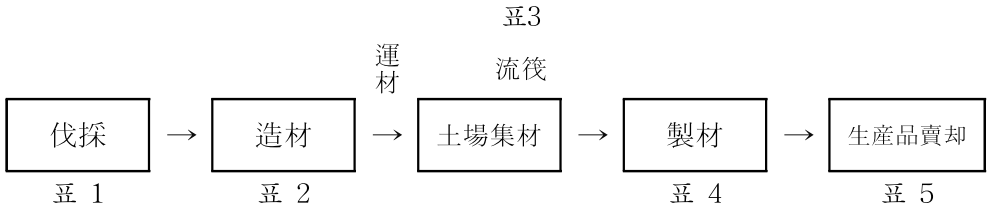
17) 칙령 제72호, 「통감부영림창관제」, 1907년 3월 ; 『통감부문서』 10권, 乙種外務部, 「서북영림창·통감부영림창업무일반」.

18) 칙령 제21호, 「西北營林廠官制新設件」, 1907년 4월, 『고종실록』 48, 고종 44(1907)년 4월 16일; 『통감부문서』 10권, 위의 자료.

19) 칙령 제367호, 「朝鮮總督府營林廠官制」, 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 제28호, 1910년 9월 30일.

20) 朝鮮總督府訓令 제27호,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1912년 3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 제475호, 1912년 3월 30일.

<그림 1> 영림창 사업 과정



<그림 1>의 첫 단계인 벌채는 영림창이 직영으로 목재를 베어내는 것이다. 영림창은 직영벌채[官行斫伐]를 수행하면서 목재를 서 있는 그대로[立木] 매각하여 매수자가 입목을 벌채하도록 하거나 영림창이 직접 벌채한 후 생산된 원목을 매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입목처분은 그 매각고가 늘어날수록 영림창 사업의 진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억제되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1915년 10월에 指定商主義를 채택함에 따라 立木處分高가 계속 증가하였고 영림창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돕는 목적을 달성하였다.[21] 지정상주의라 함은 소규모 매입자를 배제하고 지정상업 자본에만 원목을 불하하였던 것으로, 大阪 淸水榮次郞과 三井物産株式會社 京城 支店, 신의주목재주식회사[22] 등 특권 상업 자본에 민수용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였다. 1910~1925년 영림창의 입목처분고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1) 조선총독부영림창 편,『1922년 영림창사업보고』, 1923;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韓國近代林政史』, 한국목재신문사, 2001. 84쪽. 이 편역서는 萩野敏雄이 1965년에 일본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였던 조선.만주.대만의 삼림개발형을 규정하고 삼림개발이나 목재시장의 추이를 정리한『朝鮮.滿洲.臺灣林業發達史論』(임야홍제회, 1~172쪽)을 번역하여 제1부로 삼았다.

22)「회사설립허가」,『朝鮮總督府官報』제889호, 1915년 7월 20일, 설립자 多田榮吉 외 6명, 자본금 50,000원, 설립연월 1915년 7월.

<표 1> 1910~1925년 영림창 입목처분고

(단위 : 척체-엔)

연도	재적	재적지수(A)	가액	가액지수(B)	평균 단가(C)	단가 지수(D)
1910	30,951	100	26,645	100	0.861	
1911	58,923	190	52,830	198	0.897	
1912	30,617	99	20,610	77	0.673	
1913	77,998	252	56,232	211	0.721	
1914	75,782	245	44,392	167	0.586	
1915	78,263	253	20,791	78	0.266	
1916	196,205	634	34,053	128	0.174	0.26
1917	1,110,753	3,589	154,592	580	0.139	0.21
1918	635,952	2,055	171,387	643	0.269	0.40
1919	1,469,130	4,747	917,209	3,442	0.624	0.94
1920	716,671	2,316	269,085	1,010	0.375	0.56
1921	509,496	1,646	160,869	604	0.316	0.47
1922	571,095	1,845	178,634	670	0.313	0.47
1923	715,309	2,311	216,322	812	0.302	0.45
1924	837,693	2,707	303,011	1,137	0.362	0.54
1925	1,353,428	4,373	462,393	1,735	0.342	0.51
계	8,675,061		3,157,782		0.364	

출전 : 朝鮮山林會 編,『朝鮮林業逸誌』 1933년, 301~302쪽

비고 : ①『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비교하여 1915~1918년 4개년간의 입목 재적 수량 또는 가액에 서로 오차가 있으나 크지 않아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②재적지수(A)는 영림창이 1910년의 입목처분 재적을 100으로 놓고 그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가액지수(B) 역시 1910년의 가액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였다.

③단가 지수(D)는 1910~1915년의 5개년간의 평균 단가인 0.667에 대한 각 년도의 평균단가(C)의 비율을 표시하였다.

④목재 재적(材積) 단위인 척체(尺締)는 12자×1자×1자=100才로서 입방미터로 환산하면 1척체=0.334㎥이다.

<표 1>에 따르면 영림창의 입목처분량은 19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정상주의를 채택한 직후인 1916년과 1917년에 1910년 대비 입목재적 처분 수량 증가 지수는 각각 634에서 3,589로 급증을 보였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전시 호황기를 보여주는 처분 수량의 증가를 반영한다. 1921~1924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줄었으나 1925년도에 재차 반등하였다. 또한 처분 수량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가액을 입목재적으로 나눈 평균 단가가 1919년도를 제외하고는 1910~1915년의

5개년간의 단가의 평균인 0.667엔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48% 수준으로 대단히 저렴하였다. 다만 1919년의 단가가 0.624엔으로 비교적 1915년 이전의 수준으로 올랐던 이유는 전후의 물가 변동 등의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표 1>을 통해 지정상주의가 가격을 공포하지 않고 값싸게 특정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과 그것이 결국 특권적 목재상 자본의 수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윤을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기업가의 양자가 배분하는 길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영림창의 사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과 달리 영림창 조직 개편은 축소 및 통합의 방향을 취하였다.[23] 이에 1926년 6월 국유림 경영기관의 개혁을 목표로 한 <朝鮮林政計劃>의 수립에 따라 기존의 영림창을 폐지하고 신의주 영림서를 설치하였다.[24] 국유림을 개발하기 위해 임정기구를 통일하면서 영림창장이 갖고 있던 목재판매권을 총독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영림서의 소관 업무는 원래 영림창에서 경영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그 관할구역 내 사업의 조사, 벌목 및 조재(造材, 필자 주-<표 2>의 비고② 참조)의 運材(필자 주-벌채한 원목을 산림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유벌 삼림산물의 처분, 조림실행, 삼림보호, 재목의 처분, 해마다 상당 수량에 달한 漂流木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다.[25] <표 2>는 영림서에서 입목을 벌목한 후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가공한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

23) 영림창의 삼림수탈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해서는 강영심, 위의 논문, 1995 참조.

24) 칙령 제163호, 「조선총독부영림서관제」, 1926년 6월 12일, 『朝鮮總督府官報』 제4148호, 1926년 6월 18일; 朝鮮總督府 編, 『朝鮮林政計劃書』, 朝鮮總督府, 1927; 임정기관의 통일과 국유임야 사업 수지 개선 등을 주축으로 한 『조선임정계획서』의 수립 의도에 관해서는 배재수·윤여창, 「조선임정계획(1926) 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조선임정계획서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1996(0), 1996 참조.

25) 조선산림회, 임경빈 역, 앞의 책, 2000, 50~61쪽 참조. ; 野手耐, 營林廠事業要綱, 『朝鮮』 제91호, 1922년 10월 1일, 野手耐는 1922년 당시 조선총독부 영림청장임; 소유주가 不分明한 표류목재 정리에 관해서는 『統監府文書』 10권 營天第一五一號(統監府營林廠長 時尾善三郎), 「표류목 정리에 대한 협정 건에 관한 보고」 참조.

<표 2> 영림서 벌채고

(단위: 척체)

연도	조재 재적	입목 재적	지수
1926	102,242	204,484	100
1927	106,048	212,096	104
1928	245,920	491,840	241
1929	178,518	357,036	175
1930	344,947	689,894	337
1931	390,711	781,422	382
1932	282,853	565,706	277
합계	4,671,187	9,342,374	

출전 : 朝鮮山林會 編,『朝鮮林業逸誌』, 1933, 295~296쪽

비고 : ①지수는 영림서가 설립된 1926년의 벌채고[조재 재적] 수량을 100으로 두고 계산한 것임.

②조재 재적은 입목을 베어 운반하기 편리하게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다듬은 수량을 말하고 입목재적은 조재하지 않은 입목 수량을 포함함.『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조재재적은 입목재적에 대략 0.6을 곱한 정도가 사용되었음.

<표 2>에 따르면 영림서의 벌채고는 1926년 설립년도의 수량을 기준으로 1931년에 최대 3.82배 증가하였다. 또 <표 2>의 연도별 기간 중 1929년과 1932년의 2개 년도에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28% 정도의 감소된 벌채량을 보였는데 이는 어떠한 경기변동이나 수급 조절을 위한 영림서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감축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관행벌채 강화에 따른 출재량 증가는 영림창 流筏 사업량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므로 <표 3>과 같다.[26]

26) 유벌은 목재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뗏목을 말하며 압록강 各部의 수심이나 유수력에 비추어 적당한 뗏목 편제법[편벌(編筏)]을 썼다. 뗏목의 개시는 압록강의 경우 대략 5월 중순, 마지막 뗏목은 9월 하순으로 그 最盛期는 6월부터 9월에 이르는 4개월간이다. 유벌 거리는 압록강 측의 경우 일반적으로 백 리에서 5백리였고 두만강에서는 약 백 리이다.『통감부문서』10권, 앞의 자료.

<표 3> 영림창 유벌사업

(단위: 척체)

	발벌(發筏)			착벌(著筏)		
	직영	기타	합계	직영	기타	합계
1910	162,502	21,661	184,163	174,991	21,661	196,652
1911	223,054	19,987	243,041	217,221	19,987	237,208
1912	153,033	30,428	183,461	145,799	30,428	176,227
1913	101,927	22,702	124,629	93,298	22,702	116,000
1914	130,410	16,482	146,892	89,198	16,482	105,680
1915	265,714	9,412	275,126	271,932	9,412	281,344
1916	237,006	53,714	290,720	252,953	53,714	306,667
1917	282,276	4,469	286,745	298,075	4,469	302,544
1918	342,260	413,369	755,629	320,431	413,369	733,800
1919	356,522	954,935	1,311,457	289,712	954,935	1,244,647
1920	365,310	465,913	831,223	273,952	465,913	739,865
1921	366,447	331,029	697,476	354,952	331,029	685,981
1922	437,098	371,467	808,565	361,065	371,467	732,532
1923	426,560	463,447	890,007	385,176	463,447	848,623
1924	497,699	544,500	1,042,199	443,470	544,500	987,970
1925	539,258	527,820	1,067,078	498,106	527,820	1,025,926
1926	396,382	989,000	1,385,382	290,824	989,000	1,279,824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6년판

비고 : 발벌과 착벌 수량은 각각 상류에서의 뗏목의 출발 및 뗏목이 하류에 도착한 수량을 말한다. 착벌은 의주군 위화면 北下洞 저목소[土場, 목재를 채벌한 후 저장키 위한 시설]에 集材시킨 수량에 해당한다.

<표 3>에 따르면 1915년을 계기로 영림창 직영의 관행벌채 강화에 따른 발벌과 착벌 출재량이 증가일로를 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림창은 벌목 희망자로 하여금 벌출·유벌을 허가해 주고 일정한 원목료[27]를 내게 하여 자유판매를 허가하거나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28]

27) 統監府營林廠, 『營林廠 管內 森林 및 流下木材監理規則』, 1907년 6월 규정. "제3조 본창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벌목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허가의 公票를 휴대시킨다. 제4조 전조의 수속에 의하여 당창의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한 자 또는 민유림에서 벌목을 한 자로서 유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지창 또는 출장소에서 증표를 받아야 한다."; 1909년과 1910년에 영림창이 목재반출 출원자에 대하여 징수한 원목요금은 압록강 유역에서 27,795엔(1909년도), 24,420엔(1910년도)였다. 조선산림회, 임경빈 역, 『朝鮮林業史』, 2000, 61쪽.

28) 『통감부문서』 10권, 위의 자료; 유벌 작업 중 홍수를 만나거나 하면 작업예정 재적을

위 <표 3>에 나타난 직영이 아닌 '其他' 수량이 바로 유벌 사업에 뛰어든 민간 자본의 출재 실적에 연결되었다고 보았을 때 민간업이 영림창 직영 수량을 능가한 1918년~1926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 수량의 급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기간인 1910년~1926년의 16년간의 '기타' 수량이 직영과 '기타'를 합친 전체 발벌의 49.8%, 전체 착벌의 52.4%를 차지했던 데 비해 1918년 이후 8년간에 전체 발벌의 71.3% 및 착벌의 61.1%를 차지한 것이다. 이때는 제 1차 세계대전에 따른 호경기의 영향과 회사령의 폐지로 인하여 일본인 대자본의 진출이 급속도로 빨라졌던 시기이다.

한편, 영림창은 건축, 교량, 철도침목과 같은 관공청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으로 목재 판매소를 경성부 龍山에 신설하여 국내 판로를 구축하면서 판매고를 높여갔다. 그리고 1911년에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매각대금이 1회 300원 이상인 자에 대해 입목대금의 1년 이내의 延納, 즉 後拂을 인정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29]

그러나 이후의 영림창 사업은 이상과 같은 입목처분과 유벌 사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았다. 곧 직영 벌채 및 공장 조업의 단계로 확장하여 간 것이다. 국유림 경영이 영림창 소관이 된 후에도 영림창 사업은 민간의 청부작업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벌목 및 유벌을 민간의 희망자에게 맡겼던 것과 같이 주로 병영 용재의 제재 역시 1907년 6월부터 1908년까지 민간제재회사(大林組, 大倉組)에 청부하였다.[30] 그런데 건축용 제재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流下材 중 불량 원목이 적지 않게 섞여 들어가서 全 材積의 1할을 넘는 경우(1921~1922년)가 생기면 영림창이 사전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新材 착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결국 제재용 자재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영림창이 민간의 유벌 업자에게서 목재를 買收(이때의 매수지는 전부 신의주)하였다. 조선총독부영림창 편, 『1922년 영림창사업보고』, 1923.

29) 영림창의 판매 사무는 신의주 본창, 용산 출장소 또는 함경북도 慶興郡 西水羅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공공단체 및 그 밖의 확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무담보로, 개인에 대하여는 규정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사람에 한하여 물품 買收 대금 3백 원 이상인 경우에 1년 이내 대금의 연납을 허가한다고 정하였다. 조선총독부령 제147호, 「物品賣拂代金延納規則」, 1911년 11월, 칙령 제205호, 「木材賣拂代金延納に關スル法令」, 1909년 7월,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54쪽; 1921년에는 목재제품과 삼림산물에 대한 연납의 담보물에서 유가증권을 삭제하고 국채증권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총독부령 제25호, 「物品賣拂代金延納規則中改正」, 1921년 2월 12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549호, 1921년 2월 12일.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민간 회사의 청부 제재로는 그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에 따라 영림창은 신의주에 옮긴 1908년[31]에 직영 제재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909년 4월에 신의주에 있는 大林組 제재소와 두만강 유역의 松永工場 등 제재공장 2개소를 매수[32]하여 직영으로 삼으면서 민영 제재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관영 제재 단계로 들어섰다.[33]

영림서 설립 이래 1926년 8월에는 제 2공장을 신설하였고 그러던 차에 제 1공장이 화재를 입자 1927년 1월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 이어서 목재 수요의 대세로 보아 당시의 관영 제재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주로 포장상자용[包裝函用]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3공장의 신설을 기한 끝에 1928년 1월에 그 준공을 보았다.[34] 1929년 3월에는 제 2공장을 이전하면서 설비를 개선하는 등 목재수급 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확장을 계속하였다. <표 4>를 통해 제재공장의 증설에 따른 영림서 제재사업 수량의 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30) 일본의 '오바야시 건설(大林組 建設)'은 1892년 오사카에 설립된 건설회사로 일본의 5대 건설업체 중의 하나이다. 大倉組土木이 운영하는 용암포제재소가 龍岩浦 居井町에 설립된 것은 1904년 6월로 大林組建設보다 더 빨랐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1년판.

31) 영림창 설립 당시 廠長은 목재창장이 겸임하였으며 그 본부도 안동 목재창 구내에 두었다. 1908년 9월 압록강채목공사가 설립되자 영림창은 그해 10월에 본부를 신의주로 이전하였다.『통감부문서』10권, 위의 자료.

32) 朝鮮總督府營林廠 編,『朝鮮總督府營林廠事業要覽』, 1912, 4~5쪽.

33) 영림창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45~54쪽에서 정리하였다.

34) 國境文化協會,『신의주안내』, 1930, 82쪽.

<표 4> 영림창/영림서 제재사업

(단위: 척체)

연도	資材	製材	製材減
1910	243,948	131,282	112,666
1911	245,610	135,174	110,436
1912	162,652	96,169	66,483
1913	180,728	108,536	72,192
1914	133,076	84,198	48,878
1915	237,868	133,404	104,464
1916	305,664	156,441	149,223
1917	241,490	136,925	104,565
1918	235,598	141,243	94,355
1919	241,809	147,363	94,446
1920	228,423	142,315	86,108
1921	272,666	159,814	112,852
1922	321,429	181,159	140,270
1923	309,194	193,990	115,204
1924	302,195	180,149	114,046
1925	334,995	191,029	143,966
1926	276,365	168,371	107,994
1927	350,662	218,584	132,078
1928	444,183	277,753	166,434
1929	459,802	284,516	175,286
1930	480,732	307,105	173,627
1931	494,902	310,694	184,208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2년판.

비고 : ① 관제 개정으로 영림창이 폐지된 1926년도 수량은 영림창과 영림서의 수량을 합산한 것임.

② 1933년에 『朝鮮總督府統計年報』는 임산액 추계에 있어 체제가 바뀌어 製材減[나무를 베기 전의 나무 부피에서 베어낸 후의 감소된 부피를 뜻함-여기서는 제재목 생산에 따른 톱밥 등의 부산물 생산]이 빠지고 명칭이 제재부산물로 바뀌었다.

<표 4>에 따르면 1910~1931년의 기간에 영림서 제재수량은 대략 2.4배로 증가하였다. 목재를 조재하여 유벌시킨 후에 생산된 제재사업 수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은 1926~1928년의 3년간이었다. 그 기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재공장 증설이 이어진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1914~1918년을 중심으로 戰中, 戰後의 호황을 거친 이후로 영림서

제재사업은 1931년 만주사변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꾸준한 사업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림창의 소비시장은 우선적으로 관용수요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제재의 판매에 있어서도 먼저 영림창이 소요량을 매수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유매매를 허가하였다. <표 5>는 영림창에서 판매한 목재생산품 수량 및 가액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영림창/영림서 매각재 상황

(단위: 척체, 円)

연도	목재			부산물가액	가액합계
	재적	가액	단가		
1910	248,735	1,145,361	4.605	42,874	1,188,235
1911	215,269	918,957	4.269	40,994	959,951
1912	264,288	1,295,995	4.904	26,832	1,322,827
1913	266,057	1,217,853	4.577	30,278	1,248,131
1914	196,252	851,895	4.341	20,492	872,387
1915	260,970	991,238	3.798	29,552	1,020,790
1916	399,425	1,443,731	3.615	67,062	1,510,793
1917	296,389	1,460,913	4.929	54,999	1,515,912
1918	341,953	2,251,522	6.584	60,993	2,312,515
1919	242,180	2,935,433	12.121	157,972	3,093,405
1920	136,793	2,627,211	19.206	85,872	2,713,083
1921	348,231	2,894,845	8.313	103,959	2,998,804
1922	289,110	2,539,475	8.780	102,054	2,641,529
1923	299,421	2,552,960	8.526	105,756	2,658,716
1924	331,113	2,973,699	8.981	142,540	3,116,239
1925	449,968	3,280,446	7.290	151,162	3,431,608
1926	264,774	2,343,640	8.851	115,299	2,458,939
1927	(원목)364,855	1,528,077	4.188	129,022	3,909,076
	(제재)201,832	2,251,977	11.158		
1928	(원목)546,586	2,023,718	3.702	115,829	4,829,214
	(제재)264,236	2,689,667	10.179		
1929	(원목)349,751	1,405,783	4.019	112,522	4,086,457
	(제재)293,735	2,568,152	8.743		

연도	목재			부산물가액	가액합계
	재적	가액	단가		
1930	(원목)386,727	1,342,170	3.471	91,044	3,640,597
	(제재)311,006	2,207,383	7.098		
1931	(원목)515,523	1,564,070	3.034	72,749	3,425,392
	(제재)302,540	1,788,573	5.912		
1932	(원목)651,141	1,840,075	2,826	75,908	4,004,537
	(제재)371,257	2,088,554	5,626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판
비고 : 1926년까지의 수량 및 가액은 원목과 제재를 합친 것임

<표 5>에 따르면 영림창 매각재는 1910년 대비 1932년의 수량이 4.1배, 가액은 3.4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호황을 배경으로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으로 삼림을 개발한 결과였다. 또한 조선임정계획의 실시에 의해 1927년부터 매각재 수량이 급증하였고 1928년부터는 안동 측 압록강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35] 더욱이 제재공장의 증설을 꾸준히 시행한 1926년 이후에는 매각재를 원목과 제재로 나누어 나타내었는데 제재 가액과 단가가 원목 가액과 단가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제재 단가는 원목 가격의 1.9~2.7배를 보이며 큰 폭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제재 수량의 증가가 전체적인 목재업 가액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업인 영림서의 수입 증가는 조선총독부 재정 세입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36]

또한 영림서 설치로 임정 기구가 통일되자 영림서의 삼림경영, 직영사업은 보다 확장되었다. 더구나 영림서는 자재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영림서가 사용할 목재를 확보한 후에 자재를 매각하였다. 그러므로 신의주에 들어선 민간 제재업의 발전은 목재 매각고 여하를 결정하는 영림서 관영 제재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35) 1924~1930년의 출재량은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82쪽 및 1932~1936년의 신의주측 및 안동측 연도별 착벌고 수량은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案內』, 1938, 84~85쪽의 통계에 따른 것이다.

36) 조선총독부는 1916년도에 조선삼림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영림창 수입을 조선총독부 예산에 편입시켰다.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6, 130~131쪽; 총독부의 재원 확보 노력 및 관업 수입을 통한 자금 확보에 관해서는 김태웅, 『한국근대지방재정연구-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2012, 445~450쪽 참조.

2) 민간 제재회사의 설립과 자재난 문제

1910년에 서북영림창을 합하여 총독부 영림창으로 전환한 뒤에도 압록강유역 林況은 국유림 개발을 진행한 영림창 생산의 거의 全量을 차지하고 있었다.[37] 그러므로 신의주의 특산물은 단연 精米를 제외하면 목재였다. 다음 기사는 신의주 경제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평가를 잘 보여 준다.

> 신의주의 특산물로는 목재와 쌀, 대두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목재는 당지 산업의 大宗이며 경제계의 생명을 장악하고 있다. 신의주가 금일의 발전을 보인 것도 목재의 도시로서 구가한 것이 기초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고 압록강의 시대를 노래하면서부터 長流에 유벌된 목재가 떠내려 오는 광경은 국경지방에서 참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목재의 원산지는 압록강의 상류 오지에 걸친 삼림지대이다. … 그 축적량은 無盡藏하다고 칭하여진다. 이리하여 1개년의 유벌 수는 신의주 측 약 5십9만6천 입방미터, 안동 측 약 2십7만 입방미터이다. 제재고는 신의주 3십 5만 입방미터, 安東 측 십1만 3천5백 입방미터에 이르며 소위 鴨綠江材라 불리며 鮮滿 각지에 공급된다.[38]

위에 따르면 신의주는 이른바 "목재가 경제의 생명을 장악"한 "목재의 도시"였으며 그 목재는 "압록강재"라는 일종의 '공식 브랜드'화하여 신의주 내에서 그 수량을 가리켜 "무진장"이라 칭하였다.[39] <표 6>은

---

37) 張晟栻,『新義州大觀』, 1931, 107~108쪽에 따르면 1907년에서 1915년의 압록강 유역 유벌 착재(着材) 수량은 평균 약 13만 8천 척체로서 평균 8,360척체인 두만강 유역의 수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직영 유벌 수량의 94%에 달하였다; 張晟栻(?~?)은 수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널리 신의주와 국경 사정을 알리기 위해 1931년 9월『新義州大觀』을 간행하였다.『東亞日報』1931년 9월 2일,「신의주대관, 신간 소개」.

38) 신의주상공회의소,『新義州商工案內』, 1938, 80쪽.

39)『東亞日報』1922년 11월 3일「鴨綠江材需給近況 」;『東亞日報』1928년 9월 1일「鴨綠江材의 運賃割戾制廢止 豆滿江材와 함께 特定運賃制를 適用」, 압록강재는 철도화물 수송 운임에서 환불제를 통한 특전을 얻고 있었다; 1933년의 조선 내 목재수요는 원목 430만 척체, 제재 190만 척체였다. 이 중 압록강재 원목이 180만 척체, 신의주 산 제재가 70만 척체를 공급하였으며 축적 3억 척체 중 연 5백만 척체가 반출되어 20년 간 4배에 달하는 출재량의 증가를 보였다.『安東新報』1933년 6월 21일,「無盡の大森林力を 包藏する鴨綠江材 蓄積三億尺締を有し 材質頗る優越用途擴大」.

1921～1930년의 신의주부에서 목재를 製出한 회사의 통계이다.

<표 6> 1921～1930년 신의주부 목재회사 현황

(단위: 척체, 원)

연도	민영 공장					관영 공장				
	공장수	자본금	생산수량	생산가액 (A)	단가 (C)	공장수	생산수량	생산가액 (B)	단가 (D)	B/A
1921	12	1,297,000	240,382	4,216,245	17.5	1	857,507	3,162,458	3.7	75.0
1922	13	1,380,223	304,796	4,200,602	13.8	1	860,205	2,726,104	3.2	64.9
1923	13	974,400	392,983	4,194,829	10.7	1				
1924	13	908,400	402,303	4,615,603	11.5	1				
1925	12	572,400	352,983	4,088,466	11.6	1	387,018	3,198,101	8.3	78.2
1926	11	424,400	303,294	3,097,485	10.2	1	232,527	2,278,453	9.8	73.6
1927	14	491,900	432,595	4,663,347	10.8	1	524,862	3,639,535	6.9	48.3
1928	13	1,497,500	495,120	5,450,274	11.0	1	713,393	4,500,021	6.3	49.3
1929	13	1,527,500	528,172	5,302,814	10.0	1	660,530	3,791,396	5.7	48.4
1930	12	1,932,500	989,205	8,491,529	8.6	1				

출전 : 『新義州大觀』, 1931, 119～120쪽.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新義州案內』, 1930, 『平安北道鄕土誌』, 1933에서 작성.

비고 : ① 민영공장 수는 제재·목재품 부분 생산품을 합한 『新義州大觀』의 통계이다.

② 관영공장 생산수량과 價額計(B)에는 원목, 제재, 공작품, 副産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新義州大觀』의 통계를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따라 보완하였다. 1923년과 1926년, 1929년 말 영림서 공장의 제재 생산가액은 각각 2,228,144원, 1,862,836원, 2,520,654원으로 제재·목재품 가액의 대략 6～8할을 차지하였다. 1923년과 1924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는 영림서 공장과 민간[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장 수와 총 가액만 표시하였다. 1924년판의 총 가액은 6,273,332엔이다.

③ 민영공장의 생산가액에 대한 관영공장의 생산가액의 비율(B/A)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④ 영림창 관영 제재공장의 자본금은 1921～1925년까지 동일하게 5,000,000원으로 자료마다 공통된다. 제재공장의 증설이 있었지만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는 영림서 제재공장 수를 1개로 계속 표시하였다. 1928년 3월에 간행한 1926년판에는 그 자본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5,400,000원으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영림서 제재공장의 화재와 공사가 있었던 탓인지 1927년판에서는 자본금이 "–"으로 되어 있다.

<표 6>은 1921년의 목재회사를 12개소로 보고 그 자본금 및 생산수량

과 생산가액 변화를 나타내었다(<부표1>의 비교적 설립연월이 빠른 공장을 참조).[40] 자본금 및 생산수량 면에서는 1923~1927년의 5년 동안이 민간 제재업의 불황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일본대재벌이 조선에 진출한 대표적 대기업인 三井(미쓰이) 계통의 王子製紙도 1922년 9월부터 1925년 4월까지 약 2개 년 간 휴업 상태였을 정도였다.[41] 왕자제지는 신의주 유일의 제지회사로 조선의 목재 펄프공업을 독점하였으며 원목을 전부 영림창 관내 국유림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영림창의 최대 목재 소비자 왕자제지조선공장의 조업 중지로 인하여 영림창의 매년 불하 수량의 약 半數를 차지하였던 펄프 시가가 폭락하였다.[42] 이에 영향을 받은 민간 제재공장으로서는 생산가액 면에서 浮沈을 겪게 되었다.

한편 <표 6>을 통하여 관영공장 1개소가 점하는 생산수량과 가액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1921~1928년의 기간 동안 관영공장 1개소의 생산가액이 민영 제재공장 11~14개소의 생산가액 합계의 78~48%[<표 6>의 B/A]를 점하였다. 즉 영림창의 관행벌채재가 여전히 관영공장 소비 중심이었던 1920년대에도 민영 제재공장의 생산력이 급격히 성장한 반면에, 후반으로 갈수록 관영공장의 생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민영공장의 생산가액을 생산수량으로 나눈 단가[<표 6>의 C]가 1921년의 경우 관영공장의 그것[<표 6>의 D]에 비해 4.8배까지 높았으나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관영공장의 수준에 가깝게 떨어져 1928~1929년도에 대략 1.75배 정도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민영 공장의 생산력이 증대되어 생산단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주에서 관영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

40) 1921년도 신의주부의 총 공장 수는 34개였다. 張晟栻, 앞의 책, 117쪽.

41)『東亞日報』1925년 1월 9일,「災害餘波」; 왕자제지는 자본금 5백만원으로 1917년 12월에 압록강 철교 동쪽 3천 평 부지[麻田洞]에 세워졌다.『조선중앙일보』1934년 12월 29일,「三井재벌계통의 대기업회사의 하나인 왕자제지」; 1917년 조선제지주식회사로 칭하였다가 1922년 12월에 왕자제지주식회사에 병합되었다. 국경문화협회, 앞의 책, 132쪽; "현재 경영 중인 사업 중 대규모의 것은 신의주의 조선제지가 왕자제지에 비할 것인데 그 자금 대부분은 동경에서 仰하였으며… 東京방면에 관계를 有하던 事",『東亞日報』1923년 9월 18일,「사업자금의 前途 - 今後 一層困難乎」; 전성현,『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2011, 선인, 229~230쪽에서 재인용.

42) 조선총독부영림창,『營林廠事業報告』, 1923.

아 최대 불황시였던 1931년에조차도 신의주 제재공장 원목소비량의 47.8%를 차지하였고 민간공장의 소비량은 겨우 過半(52.2%)을 점하였다. 제재생산량의 경우는 관영 대 민영의 구성비가 45.6 대 54.4였다.[43] 민영 제재업의 성장 속에서 여전히 관영 공장의 수요는 민간 제재생산력의 억제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관영공장의 수요가 민간업의 압박 요인이 되는 가운데 영림창 제제부 폐지를 주장하는 민간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조선총독부는 逆으로 1928년 2월에 전매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주로 製函, 특히 煙草 포장상자 생산을 위한 제 3공장을 신의주에 설립하여 오히려 공장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44]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가운데 1916년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 신의주의 목재상이나 제재공장 설립 수나 설립 속도는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1910년경 설치된 小山工場을 효시로 하여 민간제재공장은 10여 개가 설립되었다.[45] 1912년에 淺見製材所, 1916년에는 三共製材所[46], 신의주목재상회의 창립을 보았고 1922년경까지는 川上商店, 朝鮮木材會社, 三葉商會, 丸中商會, 鴨綠江木材商會, 滿鮮車軸木材會社, 滿鮮製函木材會社, 武內製材所, 安藤製材所, 東洋製材所, 渡邊製材所(柴田製材所의 前身) 등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47] 1차 대전 후 1919, 1920년의 호황에

43)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84쪽, 제재생산량의 비율은 관과 민이 각각 6 대 4, 제재생산능력의 비율은 관과 민이 4대 6;『중앙일보』, 1934년 11월 11일, 「일만목재와 만주목재조합」; 조선산림회가 펴 낸 「營林廠の沿革と其の事業」에 의하면, 1909~1925년의 16년간 영림창 직영공장의 자재소비와 제재생산고의 합계가 전체 임산의 59%(각년도 51~68%로 분포)에 달하였다. 조선산림회,『조선임업일지』, 1933, 309~311쪽에서 재인용

44) 萩野敏雄, 裵在洙 編, 앞의 책, 84쪽; 『東亞日報』 1926년 12월 23일, 「新豫算配定」, 총독부 閣議에서는 신년도 특별예산을 다루면서 12,257,009원을 官業關係(鐵道 및 通信 收益, 專賣(煙草와 鹽), 山林 關係)의 총 歲入으로 예상하고 4,441,652원을 전매사업과 그에 필요한 공장 확장비용으로 배정하였다. 그로부터 시작된 공장 확충이 1928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45) 소산공장의 설립자는 鴨綠江運輸(株)(자본금 100,000원, 1918. 3. 20 설립)의 감사인 고야마 쇼조(小山庄三)로 보인다.

46) 三共製材所는 평양의 三共洋襪工場(1908년, 자본금 200,000원, 설립자 孫昌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에는 三共百貨店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한다.『東亞日報』 1936년 1월 1일, 「조선인, 공업회사의 프로필」;『삼천리』 13권 7호, 1941년 7월 1일, 「평양상공계의 父 東洋一의 洋襪王 孫昌潤씨 일대기」; 평양상업회의소 編,『평양양말공업의 연혁조사서』, 1927, 5-11쪽.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조선인 공장의 증가 폭은 부진하였다. (<부표 1>참조)

앞의 <표 6>에 따르면 1922년의 민영 제재 공장 수는 13개소였다. 그 중 3~4개의 공장이 경기변동의 영향이 컸던 1919년 이후의 공황기에 위기를 넘기지 못하여 공장을 닫았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확실치는 않다. 1919년 이전에 설립된 小山工場, 丸正製材, 三共製材가 사라진 공장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아남은 공장들도 다 같이 일본 재계의 불황의 영향을 받아 각 공장의 경영은 예전과 같지 않게 힘든 처지에 빠졌다. 당시 신의주 목재업자들은 低價의 판매방침을 추구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 시중 건축의 성황에 따른 少額物의 수요가 상당히 있으나 多額의 거래는 늘지 않아 大勢가 부진한 데다 만주 지방의 불황으로 목재업자 중 만주에 진출하는 자가 적지 않았는데, 만주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압록강제재무한공사(안동), 秋田商會木材株式會社(봉천), 압록강목재주식회사(安東) 등이 있어 일시 목재계의 불황으로 조합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중략) … 京城의 목재계는 시중건축의 융성과 더불어 商勢가 氣分間 挽回하는 경향이 있으나 특히 在庫 다수는 보통 재목이며 上中 재목이 적으므로 實賣가 진전이 되지 아니하는 바, 요컨대 당지 목재계는 안동・신의주 방면의 저가의 영향으로 재고품의 소화가 여의치 아니하며 일반으로 자금의 급박을 알리는 등 당업자의 곤란이 적지 않더라.[48]

위 記事에는 시가지 가옥의 건축이나 관청 공사의 증가로 인해 목재의 수요가 급상승함으로써 목재업의 商勢는 성장을 보았지만 영림창 목재 표준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시장은 그리 안정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드러나 있다. 이어서 기사는 주로 만주에 진출한 안동, 신의주 방면의 低價 商人이 이익을 보기 위하여 취한 정책으로 인하여 이에 관계된 경성

47)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8, 83쪽; 신의주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자료(1938~1942)에 의하면 東洋製材所는 1922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부표1>의 작성에서 참고한 1931년 무렵까지 간행된 여타의 자료에서는 동양제재소를 볼 수 없다

48)『東亞日報』1921년 7월 15일,「목재계의 근황, 시중건축의 성황에 伴하여 小額物의 수요는 상당히 有하나 多額의 거래는 爾著하지 않아 부진」.

목재상의 상권 내에 있던 지방 판로가 産地 상인에 의해 어지럽게 되어 자금 급박까지 받게 된 곤란을 전하고 있다.[49]

목재업계가 이상과 같은 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1923년 9월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긴급수요였다. 다음 기사는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목재상공업에 미친 관동대지진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 안동, 신의주의 목재계는 오랫동안 悲境에 沈倫하여 오던 바 대지진 이래 復興 목재의 주문이 쇄도하여 아연히 경기를 만회하였는데 …… 신의주제재조합도 京鐵局과 船車 연락운임을 협정하여 매일 十車式의 大輸送을 개시하는 중이라는데 … (하략)[50]

위에 따르면 신의주와 대안 안동 지방의 경제가 일본 관동지방의 지진 복구를 위한 목재 공급을 담당하면서 불황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진 이후 수입세가 면제되어 비교적 호황을 보이면서 목재가 면포, 대두와 함께 1924년 초 수개월 동안 일본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다.[51] 일본에서의 대지진 발생이라는 돌발 상황이 신의주・안동 양측의 목재업자에게는 하나의 特需로 작용하였고, 목재시세가 약 1할 앙등하였다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52] 지진 후의 복구 수요로 인한 불황 극복에 힘입어 1926년에 신의주의 제재는 총 산액의 6할을 넘게 점하여 그야말로 신의주의 유일한 자원인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업의 성쇠가 부민의 안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53]

그러나 신의주 목재계의 성황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은 목재 가격의 이상 등귀를 초래하여 시세가 폭등함으로써 업자에겐 고통이 되었다. 게다가 1924년에 재계 불황을 예상하고 벌채를 중지한 데에다 홍수로 저목을

---

49)『東亞日報』1923년 2월 14일,「木材界의 近況」, 1923년에 京城材木商組合의 加盟店數는 폐점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여 25개가 되었다.
50)『東亞日報』1924년 1월 10일,「國境木材活況」.
51)「조선대외국무역개황」,『朝鮮總督府官報』제3735호, 1925년 1월 29일.
52)『東亞日報』1923년 9월 11일,「震災와 木材時勢」
53)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7, 30쪽.

유실하였기 때문에 원목 부족이 부득이하였다. 결국 당년 해빙기까지 자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것을 우려한 영림창에서는 다시 가격을 약 1할 2분 인상하였다.[54] 자재난을 겪게 된 목재업계는 결국 조업을 단축하는 상태에 놓였으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각 공장의 연합이 모색되었다.

위와 같은 재계 불황기에 봉착하여 각 공장의 경영이 예전과 같지 않게 힘든 상황이 되자 신의주의 목재업자들은 2,3공장을 제외하고 13공장으로 제재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5년 7월에 목재상 多田榮吉[55]과 대주주 橫江重助[56]가 또 다른 목재상 表谷佐平[57]을 끌어들임으로써 石岐[58], 조선목재, 압록강목재, 長澤商店, 신의주목재, 渡邊의 6공장의 연합으로 鴨江木材株式會社가 탄생하였다.[59] 압강목재주식회사는 민간공장 중 최대 규모로서 1930년 현재 종업원이 3백 여 명까지 이르렀으며 생산수량 15만 5천 척체, 생산가액이 123만원이었다. 이는 영림서 관영공장과 對峙하며 왕자제지주식회사조선공장에도 비할 수 있을 정도였다.[60]

---

54)『東亞日報』1924년 1월 10일, 위의 기사.

55) 1879년생, 출신지는 大阪이다. 齋藤實 총독에게서 '국경총독'의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京城日報』1935년 10월 8일,「朝鮮を育んだ人人(21)總督府始政廿五周年記念本社事業の一 民間(現在)功勞者紙上表彰いまや自ら任する國境總督さん- アリナレの流れと共に三十年多田榮吉氏」; 1926년 鴨綠江輪船公司 사장. 1930년 신의주미곡상조합장 등 역임함.

56) 1882년생, 평안북도 평의원, 신의주부회의원, 압강목재주식회사 취체역 이사장, 주식회사 鴨江日報 취체역, 신의주전기주식회사 감사역, 신의주 常磐町 郵便所長, 신의주목재상조합장, 신의주제재업조합장. 『전선부읍회의원명감』272쪽.

57) 表谷은 1922년 이전에 합자회사 압록강목재상회를 세웠으며 1927년 4월에 표곡목재합자회사를 자본금 5만원으로 설립하였다.『조선공로자명감』, 194쪽.

58) 1906년 5월 安東縣에서 石崎治吉에 의해 합명회사 石崎商店 설립(재목상). 石崎治吉는 1923년에 석기상점을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專務理事가 되었으며 이후 신의주에 석기상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장이 됨. 이은자·오미일,「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史叢』79,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3, 37쪽, '신의주부내 중국인 고용공장의 노동자 수와 임금 비교' 表에서는 石崎製材所의 경영자 인명을 石崎久三郎으로 적고 있다.

59) 설립일 1925년 7월 1일, 자본금 250,000원, 사장 多田榮吉, 橫江重助, 대주주 橫江重助(2031), 株式會社石崎商店(1100), 신의주木材會社(971), 朝鮮木材會社(930), 橫江重助, 長澤紀代司(각500), 增田光平(431), 多田榮吉(100), ( )은 주식 수; 1925년의 직공수가 6백 여 명,『동아일보』1925년 9월 12일,「압강목재주식회사직공 懇談」.

60) 國境文化協會, 위의 책, 132쪽, 왕자제지조선공장은 1931년에 자본금 6,650여 만 원, 종업원 4백 여 명, 洋紙 年 産額이 3천여 만 근(听), 價額 3백만 원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신의주에 세워진 회사, 공장은 조선인 경영의 것이 없고 모두 일본인의 경영이거나 중국인이 설립한 것이었다.[61]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의주가 목재・제재업 발전을 토대로 하여 성장하였지만 조선인의 경제력은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본인이 신의주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62]

이처럼 조선인 주도의 공장 설립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목재·제재업은 성장을 이어갔다. <표 7>은 1920년대 후반의 목재 유하 수량이다.

<표 7> 목재 유하 도착 수량

(단위: 척체)

종별	1910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영림서		432,985	251,417	670,190	757,518	658,662
민간공장		290,065	325,593	519,385	628,237	781,878
계	155,786	723,050	577,010	1,189,575	1,375,745	1,439,430

출전 : 國境文化協會, 『新義州案內』, 1930, 115쪽.

<표 7>에 따르면 영림서가 벌목하는 목재 수량도 증가 폭이 컸지만 특히 일본인 민간업자가 유하시킨 목재 수량이 1925~1929년의 4년간에만도 증가지수 270을 보이며 증가하였다. 민간재의 유하 수량은 1926년까지의 완만한 증가가 1927년 이후의 시기로 가면서 거의 두 배로 뛰어 증가율에 있어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공장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던 상황과 잇닿는다. 1927년까지 昭和木材, 1928년 이후에는 平安

61) 張晟栻, 앞의 책, 1931, 57쪽, 1929년 말 신의주의 50여 회사, 공장이 매년 천만 원의 생산품을 제작하였지만 조선인의 소유·경영이 없었다. 심지어 양말업까지도 조선인은 없고 중국인의 11개 공장이 年 8십 여 만 원을 생산하였다.

62) 1922년 말 신의주의 조선인 1인당 직접세 부담액은 1.146엔, 일본인은 17.887엔, 중국인은 2.592엔이었다. 즉 일본인의 평균 부담액이 조선인의 그것에 비해 15.6배, 중국인의 부담액이 평균 2.3배였다. 또한 1925년 말에 신의주부의 일본인의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조선인에 비해 99.4배, 지방세의 경우 8.4배, 부세부과금은 13.1배, 직접세 합계액에서는 9.7배로 훨씬 많았다. 3년 사이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세부과금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인 1인당 평균부담액이 조선인의 1인당 평균부담액에 비해 2.2배 많았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3년판, 1926년판; 1922년 시가지세령 개정에 의해 지방세 부과율은 0.7%에서 0.95%로 높아졌다. 제령 제5호, 「市街地稅令中改正」,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887호, 1922년 3월 31일.

木材, 近藤製材 및 村上洋行中島工場이 신설되었고 長澤商事株式會社가 압록강목재주식회사에서 분리하여 세워졌다.[63] 府內에는 義昌製材所와 秋田商會木材會社出張所 역시 설립되었다. <표 8>은 1926~1929년의 4개년 간 제재업의 생산수량을 관영과 민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8> 1926~1929년 제재업 생산 수량

(단위: 척체-%)

종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영림서	163,181	36.80	217,460	41.6	269,574	42.9	289,380	38.9
민간공장	279,995	63.20	305,195	58.4	359,312	57.1	453,729	61.1
計	443,176	100	522,655		628,886		743,009	

출전 : 國境文化協會, 『新義州案內』, 1930, 81쪽.

<표 8>에 따르면 1926~1929년의 4년간의 민간 공장의 제재생산 수량이 57~63%에 달하여 대체로 관과 민의 비중이 4대 6을 보였던 것으로 영림서에 맞서는 민간제재공장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29년 말 신의주의 민간 13개 공장의 생산가액은 3,288.312엔으로 관영 공장의 2,520,654엔을 1.3배로 능가하였다. 이는 당시 신의주에 있던 정미공장 12개소의 생산액 합계인 2,001,800엔의 161%에 달하는 액수였다.[64]

신의주는 또한 "무역의 도시"였다.[65] 실제로 신의주는 평안북도 서북 모퉁이에 위치한 국경의 요지였으며 항구 자체로 보아도 지방의 작은 항구라고만 볼 수 없는 全朝鮮的인 대외무역항이었다.[66] 조선 내 각지에 수송되는 화물의 태반이 신의주를 경유할 만큼 대중국 대일본 무역항으로 조선 유일의 지위를 점하였다.

1911년 11월의 압록강 철교 준공[67]과 안봉선(필자 주－안동~봉천 간)

63)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8, 83~84쪽.
64) 國境文化協會, 앞의 책, 1930, 59쪽.
65) 張晟栻, 앞의 책, 160쪽.
66) 新義州商工會議所, 앞의 자료, 1942, 16쪽; 「朝鮮貿易概況」, 『朝鮮總督府官報』, 제48호, 1927년 3월 1일.
67) 鴨綠江採木公司 編. 『鴨綠江林業誌』, 1919, 45쪽; 張晟栻, 앞의 책, 15~17쪽; 신의주가 안동의 對岸에 국경철교의 가설 지점, 즉 鴨綠江架橋點으로 결정되어 '신의주'라고 명명된 경위에 대해서는 孫禎睦,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 硏究 : 開港場·開市場·祖

개축으로 철도연락이 완성되고 1913년의 중국과의 국경통과화물 3분의 1 감세의 실시와 더불어 신의주항 무역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68] 1907년 무역액 146만원이었던 것이 1913년에는 407만원에 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계가 전에 없던 팽창을 함에 따라 1919년에는 2,500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뒤에 언급될 1920년의 관세 개정에 따라 만주와 일본 간의 철도화물의 일부가 신의주항을 통관하면서 신의주 무역 규모는 더욱 증대하여 1926년에는 6천만 원을 돌파하였다.[69] 1918, 1919년의 물가 폭등, 1920년 5월 이후 일본 재계의 공황 영향을 받아 불경기가 심화된 일,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지진 등이 간접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세는 무역량의 격증이었다.

위와 같은 무역 증진 속에 목재 수입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여 조선 내 목재업자를 압도하였다. 목재 수입은 주로 안동산 제재였으며 그 외 만주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1920년의 전조선 목재 수이입가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21년부터 1926년의 6개년 간 각각 277, 455, 393, 336, 315, 350의 지수를 보이며 증가함에 따라 안동산 목재 수입에 대한 대항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었다.[70]

界 居留地』, '개항장이 아닌 신의주 개항', 390~396쪽 참조; 1911년 11월에 1909년 8월 착공한 압록강철교(延長 3,098피트[呎]) 가설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신의주는 안봉선에 연결되었다. 이로써 滿鮮直通鐵道가 완성됨에 따라 경의선 완성(1906년)에 이어 滿洲鐵道와 국내의 각 지선과의 連絡運輸體制를 갖추어 육로교통의 요충이 될 수 있었다. 압록강철교의 개폐시각은 매년 결빙기(12월 상순부터 3월 하순까지)를 제외하고 일정하다. 1일 3회로 오전 9시30분, 오후 1시 20분, 오후 5시이며 이 시각의 한 시간 후에 폐쇄한다. 間城益次 編,『平壤案內』, 平壤 : 平壤商業會議所, 1920, 39쪽.

68) 「鮮滿國境通過鐵道貨物關稅輕減取極」 1913년 5월 29일,『朝鮮總督府官報』, 제262호, 1913. 6. 16. 제1조는 수출과 수입세의 三分之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1914년부터 일본 철도, 조선 철도, 안봉철도를 경유하는 三線連絡 화물에 대해서 약 30%의 특별 할인 운임[拂戾]을 적용하였다. 이은자,「중일전쟁 이전 시기 중국의 국경도시 안동의 이주민-교류와 갈등의 이중주」,『중국근현대사연구』62, 2014, 100쪽; 일본~조선~만주의 연락운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정재정,『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1999, 105~139쪽 참조.

69) 1920년의 무역액(1억3천3백81만4천여 원)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26년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이 1억4천8백71만2천여 원에 달하여 이 해에 그 記錄을 깨트렸다.

70) 朝鮮總督府 編,『조선무역연표』각년판; 宋圭振,「일제하 조선의 무역정책과 식민지무역구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82, 88쪽에서 인용.

3) 목재 관세 특례 폐지 운동

1920년 8월 법률 제 53호의 시행을 통해 일본의 關稅定率法을 조선에도 실시한 가운데 이른바 '관세특례 규정'으로 목재관세의 특례 즉 목재를 無關稅로 한 제도가 실시되었다.[71] 당시의 조선은 원목의 벌채량도 적고 제재공장도 부족하여 원목, 제재 모두 외국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조선내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였던 때였으므로 목재 관세 無稅의 조치로 인해 목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72] 따라서 신의주의 재제업계는 목재 관세의 특례를 폐지하여 안동 수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게 되었다.

더욱이 호경기시대였던 1926년 신의주에 9개 제재 공장이 가동 중인 때에 목재가격의 폭등이 오자 만주산 목재 무관세 문제가 표면화되었다.[73] 또 이 무렵의 조선 내의 제재능력은 해마다 현저히 늘어났고 원목의 생산량도 역시 매우 증가하여 감으로써 제재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1926년 3월 29일 법률 제 36호의 개정에 의해서도 목재는 여전히 무관세로 남았다.[74] 수량으로 보아 1927년 당시 과거 3개 년 간 조선의 평균 목재 수이입액은 원목 37만 6340척체, 제재 45만 8530척체인 데 반해 수이출액의 경우는 원목 29만 447척체,

---

71) 법률 제53호, 「관세법중개정」, 1920년 8월 6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401호, 1920년 8월 11일, 법률 제53호는 면세특례의 대상품을 정한 제5조 <별표>에서 馬, 綿羊, 코크스, 목재 등 7개 품목의 수입에 관한 특수 세율을 규정하고 '평안북도 신의주 정거장에서 함경북도 두만강 입구에 이르는 陸接國境에서 거래되는 목재를 無稅로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1911년 조선관세정률령(제령 제20호)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 7.5%, 활엽수 목재에 10%를 부과하던 관세가 폐지되었다; 『東亞日報』 1920년 7월 10~12일, 「관세철폐와 조선산업」.

72) 1920년 당시에 신의주의 민간 제재공장은 겨우 2개였다. 그 2곳은 丸正製材工場(1911년 11월 설립, 자본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액)과 淺見製材工場(1912년 9월 설립, 자본금 30,000원)으로 보인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따르면 1921년도 무렵까지 조선인 제재공장은 2개소(자본금 45,000원)였다. 1925년판에서 조선인 공장은 5개로 조사되었다; 張晟栻, 앞의 책, 104쪽.

73) 1926년 9개의 제재 공장은 淺見, 新義州, 滿鮮製函木材, 柴田, 鴨江木材, 武內, 丸中, 三葉商會 및 영림창 공장 1이었던 것으로 본다. 뒤의 <부표 1>을 참조; 목재관세문제의 발생과 진행에 대해서는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98~117쪽을 참고.

74) 법률 제36호, 「關稅定率法中改正」, 1926년 3월 29일,『朝鮮總督府官報』 제4083호, 1926년 4월 1일.

제재 29만 8677척체로 수이입초과액이 각각 원목 8만 5893척체, 제재 15만 9853척체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 내 목재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 목재가 수이입초과액 만큼의 부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농림성을 중심으로 조선 내 목재자본의 보호를 위하여 조선목재관세특례폐지안을 마련하였다.[75] 조선총독부는 일본 농림성이 일본에서 수입재에 대한 목재관세정률을 개정하여 종가 약 2할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법률 제 53호에 따른 조선의 목재관세특례도 자연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일본에서의 개정률이 조선에서도 즉각 적용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조선이 만주측의 직접적인 원망을 살 것이 없이 일본의 관세 인상과 조선의 면세특례 폐지라는 두개의 현안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주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압록강 유역 국유림의 증벌에 의하여 원목의 공급이 증가하여 자급자족상태에 가까우므로 외재의 수입에 의한 수급조절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특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銀 시세와 관련된 안동목재의 수입은 조선산 목재에 대한 일대 위협인데 은 시세의 하락은 안동재의 조선수입을 촉진하여 조선 내의 목재 시가를 교란하였으므로 관세의 장벽을 세워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6]

1917년에도 조선총독부는 무역 수지 적자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 목재관세의 부활을 기도한 바가 있었으며[77] 1927년에는 조선 내 목재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리라는 판단과 관세부과에 의한 세입증

75) 『東亞日報』 1927년 9월 28일, 「농림성에 木材關稅定率改正을 企圖」; 1920~1928년의 연평균 목재 수이입량은 약 29만 입방미터로, 당시 국내 목재 소비량의 17.8%까지 증가한 상황이었다. 배재수, 앞의 논문, 2005, 18쪽.

76) 『東亞日報』 1927년 12월 21일; 『東亞日報』 1927년 9월 4일, 「점차 문제화하는 목관특례철폐문제」.

77) "작년(1916년)의 제재수입고는 48만 척체에 달함으로 일본의 해당 세율(두께 65㎜ 이하의 板(널판지)에 대해서는 매 입방미터에 3원10전, 두께 150㎜ 이하의 각재에 대하여는 매 입방미터에 1원 95전)을 그대로 안동 수입재 48만 척체에 적용하면 약 50만원의 세 수입이 될 수 있으나 과세 영향을 받아 다소 수입 감소를 예상할지라도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임으로 재무당국에서는 꼭 내년도에 이를 실현하려고 조사 중이더라". 『東亞日報』 1917년 8월 17일, 「목재관세특례」.

가, 즉 조선 목재 보호와 산림정책 확립을 내세워 안동으로부터의 수입 제재품에 대해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였다.[78]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된 無稅의 안동수입재에 대한 관세 부과 노력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鴨綠江製材無限公司側의 맹렬한 반대를 받아 실현되기 어려웠다.[79] 안동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총독부의 자급자족의 조절은 실제 불가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내 수요 목재 가격의 약 4할 이상 5할을 보이는 만주재를 배제하고는 수급의 평형을 잃고 시가는 자연히 앙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목재 관세 부과가 일반 소비자를 희생시켜 일부 제재업자를 보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안동 측에서는 총독부가 銀 시세를 운운하나 안동, 신의주를 막론하고 제재공장에는 중국인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비에 있어서는 兩地가 공통적으로 완전히 균등한 처지에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안동에서는 수출세로 종가 5分, 出産稅(필자 주－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他處로 운반할 때 발송지, 즉 出産地에서 先納하는 세금)로 종가 6分 6厘의 公課 부담이 있으므로 銀價 하락으로 안동측이 다소 유리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과금에 의해 상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근거에서 안동측은 종래의 만주재의 조선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특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의 제재업자들은 無稅의 만주재에 일약 3分이 부과된다면 사활문제에 결부된다고 보았다.[80]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의회에 제안될 목재관세 개정안에 있어서는 만주국 설립 이후 日·滿經濟 블록을 공동목표로 세워 온 만주·조선 관계를 고려하여 편법이 강구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목재관세 특례는 폐지하되

---

78)『東亞日報』1927년 3월 21일,「중요법안과 정부의 태도」; 매 1입방미터 3원 10전 내지 1원 95전은 곧 종가 약 9分에 當하였다. 1927년에 관세부과를 시도한 때의 방침은 수입목재 중 두께 5촌 이하의 角材와 挽板만 과세하고 기타의 원목은 全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東亞日報』1927년 9월 4일,「점차 문제화하는 목관특례철폐문제」.

79) 1915년 10월 설립된 압록강제재무한공사는 鴨綠江採木公司와 男爵 大倉喜八郎 등이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였다. 본점과 공장은 만주 안동현 大倉通에 있었다. 佐藤正二郎 編, 앞의 책, 291쪽; 鴨綠江製材無限公司는 大倉組 제재소의 후신.『조선인사흥신록』, 263쪽.「田中喜一」.

80)『東亞日報』1927년 9월 4일, 위의 기사.

개정율 적용 후라도 초년도 즉 1929년도는 1分, 1930, 1931년도는 2分을 부과하고 1932년부터 3分을 과세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제의 의미로 關東廳[81]은 별개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82]

결국 관세 부과 문제는 신의주와 안동의 문제가 아닌 일본 본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 권력과 안동 일본인 목재자본의 이권다툼을 넘어 대륙정책 추진의 입장에 선 외무성을 포함하여 반대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도 많았던 것이다.[83] 조선총독부측의 대변자인 朝鮮山林會와 암암리에 滿鐵(필자 주－1907년 설립된 국책회사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말한다)의 후원을 받는 안동상업회의소, 안동지방위원회, 안동목재상조합 등의 대표자도 모두 동경으로 가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팔방으로 분주하였다.[84] 이에 조선총독부는 일본 의회에 상정된 후인 1927년 12월에 草間 財務局長과 圓田 山林部長을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 본국정부와 협의하는 등 1928년도에 특례 철폐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쏟았다.[85]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 신의주 상공회의소의 설립 시도와 연관되었다.[86] 일제가 朝鮮商業會議所令을 발포한 것은 1915년이었으나 이에 입각하여 설립된 상업회의소 가운데 신의주는 빠져 있었다.[87] 당시 신의주

---

81) 관동주는 요령성 요동반도에 있던 일본 조차지였다. 러·일전쟁 중 점령지인 관동주의 행정기구로 군정서가 탄생하였던 것(1906년)을 관동도독부라 하였으며 1919년부터는 이를 관동청, 1934년에는 관동국이라 고쳐 불렀다.

82)『東亞日報』1929년 2월 22일,「만주목재관세를 조선유입에 부과」.

83) 전국삼림연합회,「我國に於ける木材關稅及其沿革」, 1936, 191~194쪽 ;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102쪽에서 재인용.

84) 朝鮮山林會는 1921년 6월 창립되어 회장에 美濃部俊吉, 부회장에 韓昌洙, 賀田直治가 선임되었다.『東亞日報』1921년 6월 11~12일;『東亞日報』1927년 9월 4일,「점차 문제화하는 목관특례철폐문제」.

85) 경성상업회의소월보,『조선경제잡지』제134호 談叢, 1927년 2월; 조선총독부산림부장 園田寬,「木材關稅特例廢止に就て」; 1927년의 목관특례폐지에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협의키 위해 12월 21일 급거 동경으로 향한 산림부장 園田寬은 前 理財課長으로서 관세사무에 通曉하다는 評이 있었다.『東亞日報』1927년 12월 21일,「木材, 鹽, 석유 등 輸入特例를 廢止」.

86)『東亞日報』1927년 5월 29일,「商議所設置運動」.

87) 제령 제4호,「조선상업회의소령」, 1915년 7월 15일,『朝鮮總督府官報』제885호, 1915년 7월 15일; 경성상업회의소,『朝鮮經濟年鑑』, 1917.

는 府 지역이면서도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상업회의소를 설립할 만큼 일본인사회가 공고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우월하지 않다는 사유가 있었으며, 부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신의주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합한 인구가 이제 막 6천 명을 넘어선 사정과 관계가 있었다.[88]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신의주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공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어 그 설립에 충당할 기금으로 신의주의 有志들이 京城取人信託株의 「프리미엄(할증발행)」에 의뢰했던 수익금을 府尹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비록 전후 재계에 불황이 닥치자 일부에서 시기상조론이 일면서 실현을 보지 못하였지만, 192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와 목재관세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상공업자들이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전년도인 1925년에 鴨江木材株式會社를 탄생시킨 과정에서 신의주 민간제재업자들이 연합하여 역량을 강화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1927년 5월 25일 당시 府尹 藤谷作次郎이 府會議室에서 신의주상업회의소 창립을 위한 제1회 相談會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출석한 加藤銕治郎[89], 中込精一 등 14인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만장일치로 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신의주상업회의소 창립준비위원으로 11명을 위촉하였다. 그 중 加藤銕治郎, 多田榮吉, 橫江重助, 中込精一 4명은 府協議會員이었다.[90] 회원자격은 1년 이상 연속 府營業稅 年額 7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에 한정되었다.[91]

---

88) 1922년까지도 신의주의 전체 인구는 2만 명 미만(18,696명)으로 부제 시행지 중 최하 군의 선거지로서 인구 多少에 의해 정해지는 부 의회 선거의 부협의원 선거원수는 12명이었다.

89) 加藤은 1872년생으로서 190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신의주 本町에 자리를 잡고 미곡상을 개업, 신의주 상공회의소 회두, 無盡會社 사장 및 신의주은행 은행장, 道會議員과 鴨江日報 사장을 역임하였다. 압강일보는 신의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평안남북도 언론을 대표하였고 西鮮지방과 東滿洲에 관한 기사에서 유력하였다. 사장은 처음 高橋種次郎에서 1917년부터 加藤銕治郎이 맡았으며 주필은 小川延吉이었다. 佐藤正二郎編, 앞의 자료, 115쪽; 1937년 10월 신의주 역전에 신의주상공회의소가 준공된 후 加藤의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동아일보』 1937년 11월 2일, 「신의주 加藤씨 記念」; 1938년에 그가 운영한 丸加商會는 銃砲火藥自動車商이었다.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1938, 87쪽.

90)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1937, 23쪽.

결국 조선목재관세특례폐지안은 일본 목재관세 인상안과 함께 1929년 3월에 가결되어 3월 30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92] 목재는 종래 無稅를 有稅로 하면서도 특례의 전폐에 이르기까지 2단계의 세율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관동청과 滿鐵은 이에 맞서 조선의 목재수입 관세 상당액의 輸出 助成金[보조금]을 각각 반액씩, 그리고 일본수출용에 대해서는 관동청이 관세전액을 부담하여 安東材 뿐만 아니라 吉林·長春材까지 그러한 보조금의 혜택을 입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세율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만주측과 타협한 특례폐지안을 두고 신의주제제업조합장 橫江重助는 만주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신의주의 민간 제재업자가 관영공장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며 다시 호소하였다.[93] 따라서 조선에서는 잠정조치, 즉 초년도 3할, 2년도 2할, 3년도 1할의 보조금 지급율에 대한 폐지운동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잠정기간 종료와 동시에 과세율은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으며 총독부와 관동청은 각각 부가세와 조성금 교부로 맞서면서 만주사변 발발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보되어왔던 신의주상공회의소가 설립 인가되었으며 그를 계기로 신의주 제재업계는 무엇보다 단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94]

---

91) 이 자격요건은 1916년에 설립된 대구상업회의소 및 진남포상업회의소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신의주상업회의소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인은 납세자 총수의 56.3%가 7엔 이상 납부자였던 데 비하여 조선인은 조선인 납세자 중에서도 22.0%만이 7엔 이상 납부자로 이들만이 상공회의소 회원 자격을 가졌다(납세자총수 2,999(조선전체 납세자 129,272)명).

92) 법률 제35호 「관세정률법중개정」 1929년 3월 29일, 『조선총독부관보』 제675호, 1929년 4월 5일, 1920년의 법률 제53호를 개정하여 그 중 제1조를 소거하고 별표의 수입세표 갑호에서 1930년 3월 30일까지 목재 입방미터당 수입세율 0.40을, 1930년 4월 1일부터 1932년 3월 30일까지는 세율 0.7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93) 『京城日報』 1931년 11월 7일, 筆者 橫江重助, 「(平安北道)新義州を語る(二)新義州經濟の命脈製材業組合の立場」;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104쪽.

94) 『東亞日報』 1927년 9월 16일, 「신의주상의소 設置認可 신청」; 朝鮮總督府告示 제394호, 「不服申立事件裁決」, 1927년 11월 24일, 『조선총독부관보』 제271호, 1927년 11월 24일, 신의주상공회의소는 1927년 11월 24일 설립 인가되었다; 설립 이후 상공회의소는 적극적으로 상공업자의 이익을 수호하였다. 만주국 수립 이후 日滿間의 특혜관세 협정을 요망하여 운동을 전개한 일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東亞日報』 1932년 8월 16일. 「신의주 商議가 조•만간 관세 특혜적 설정 요망」. 압록강의 제2철교 실현에도 노력하였다. 『東亞日報』 1936년 2월 3일, 「鴨江의 제2철교- 安義 兩市民은 절대요망」.

3. 民間 製材業의 추이와 新義州 木材商組合의 활동 (1931～1936)

1) 만주국 수립 이후 민간 제재업의 추이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은 신의주의 민간 제재업자들에게는 최대 불황기였다. 앞선 1930년 9월에 육접국경 3분의 1 감세가 폐지되어 화물 수송비가 증가한 데다 수출입 관세의 인상, 중국 銀價 폭락 등의 惡材가 더해져서 재계의 불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난관에 봉착하였다.[95] 신의주항 무역도 1931년에 조[粟]의 수입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진하였거니와 무엇보다 만주사변의 영향이 있어 현저히 줄어들었다. 목재 수출 가액 역시 실로 대폭 감소하여 1931년 말 959,000원으로 1929년도에 대비하여 32.8%에 그쳤는데 목재 수입액은 오히려 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96] 신의주항 목재 무역의 출초 현상은 1931년에 입초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목재의 수입이 다시 늘어나 조선산 목재와 경쟁하고 그 판로를 잠식하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재계에서는 긴축을 도모해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32년 이후 銀價가 오르고 사변이 일단락됨에 따라 철도운수가 복구되며 호전되었다. 이는 다시 만주국 수립 이후의 건설 경기 활성화,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영향, 전시자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입량의 증가가 다시 시작되었다.[97] 1932년에 新義州稅關이 펴낸 『新義州港一斑』에 따르면 신의주항 무역액 역시 다시 증가하여

95) 張晟栻, 앞의 책, 187쪽.

96) 新義州稅關 編, 「新義州港一斑」, 8～9쪽. 日本大分高等商業學校圖書分類目錄, 『商事調査部』 1932년 6월 22일; 신의주항의 목재 수출가액은 1926년의 1,060,939원에서 1927년 1,457,980원, 1929년에는 2,920,383원으로 주로 북만주 외 만주국, 관동주로 수출되었다. 『신의주항무역개람』, 1929. 日本大分高等商業學校圖書分類目錄, 『商事調査部』 1930년 4월 10일.

97) 만주국으로의 목재 수출의 증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만주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결과 조선상품이 이전에 비해 유리해진 것이었다. 둘째 조선산 박달나무[檀木]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 만주국 경제건설에 있어 긴요하였으므로 대단한 수요증가를 보게 되었다. 宋圭振,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 『아세아연구』105, 2001, 187~188쪽.

수출입 화물 年 백만 톤(噸), 4천만 원의 액수로서 신의주는 조선의 대외 무역상 제일 항이 되었다.[98] 이 시기의 주요 수출입상대국을 국가별로 파악하면 만주국, 관동주, 중국 순서였다. 1932년 3월의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국이 중국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된 현실 변화가 결국 조선 상품이 만주국에서 1931년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조선과 만주가 접경 지역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여 만주국으로의 수출을 다시 호황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99] 모든 주요 수입액도 수출액과 같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런데 신의주 부내의 제재공장은 만주로의 수출 호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재난에 봉착하였다. 만주국 수립과 함께 건설 활동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악화로 인해 만주재 생산은 감소했기 때문에 조선이 만주국에 대하여 목재를 공급하는 기지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만주국에서 부과하는 목재관세가 조선총독부에서 부과하는 목재 관세보다 원목과 제재품 모두 저율이었던 까닭에 조선재 원목의 만주 수출량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또 제재품 수출도 급증했는데 대부분이 무관세의 군용재였다.[100] 1933년에 압록강재는 국내 수요 원목 430만 척체 중 180만 척체를, 신의주 제재공장은 190만 척체의 제재 수요 중 70만 척체를 반출하고 있었다. 만주국 원목이 감소한 반면 만주국 건설사업이 발흥함으로 인해 자재를 조선에서 구하게 되자 신의주 목재계는 공급부족으로 목재 가격이 급등하여 "採算不能"의 위기에 처하였다.[101] 이처럼 신의주에 닥친 자재난과 관세고는 민간 제재업을 다시 휴업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昭和製鋼所가 만주로 가게 된 것 또한 침체의 원인이었다. 만주국 설립 이후 신의주에 설치될 것이 확실시되던 자본금 1억 원 규모의 소화제강소가 1932년 9월 말에 이르러 신의주가 아닌 만주국 鞍山으로 결정되고 경성 본점까지 안산으로 이전하기에 이른 것은 목재계에는 중대한 기회의 상실로 받아들여졌다.[102] 1932년 이후의 제재·목재업 상황을 파악

98) 新義州稅關 編, 앞의 자료, 11~12쪽.
99)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의 수출대상국 다변화에 대해서는 宋圭振, 박사논문, 93~105쪽 참조.
100)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105쪽.
101)『東亞日報』1933년 6월 13일,「新義州 木材界 採算不能의 窮境」

하기 위해 당시의 신의주[조선 측] 착벌고를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1932~1936년 신의주(조선측) 착벌고

(단위 : 입방미터)

연도별/급별/수량	관영	민영(A)	합계(B)	착벌고 합계에대한 민영착벌고의 비율(A/B)
1932년	265,027	225,393	490,420	46
1933년	309,551	368,496	678,048	54.3
1934년	294,983	341,678	636,661	53.7
1935년	272,405	348,606	621,011	56.1
1936년	270,042	326,669	596,711	54.7

출전 : 신의주상공회의소, 『신의주상공안내』 1938년, 85쪽.

비고 :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비롯한 각 통계에서는 척체 대신 입방미터(㎥)를 재적 단위로 사용하였다. 배재수, 앞의 논문, 2005, 4쪽 참조.

<표 9>에 따르면 1933년을 기점으로 신의주의 착벌고가 연이어 줄어들었다. 貯木高의 수량이 감소하여 유벌고에 영향을 주자 제재 작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구나 자재의 소비가 많은데도 유벌고가 감소하면 다음 해의 新材 유하를 기다려 조업해야 했다. 이처럼 유벌고가 감소하여 자재난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민영 착벌고의 비중은 오히려 관영인 영림서 착벌고를 웃돌며 전체 수량의 46~56%까지 늘어났다. 당시는 만주국 목재 공급 외에 국내의 목재 수요나 일본으로의 이출을 모두 조선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민간의 착벌고는 증가하였다.[103] 신의주에서도 大二商會[104]中島工場(1932. 8), 協同製材(1933. 5),

102) 多田商會主 多田榮吉은 1930년 소화제강소 조선 내 설치운동의 제 일선에 서서 "만일 소화제강소가 타 지방[필자 주-만주]으로 간다면 割腹하여 府民에 대한 運動者의 한 사람으로서 죄를 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東亞日報』 1930년 11월 22일, 「현재 신의주의 棟梁과 磐石」; 또한 多田榮吉은 加藤銕治郎과 함께 渡東委員으로 선출되어 동경에 가게 되었다. 『東亞日報』 1932년 2월 29일, 「소화제강소 敷地가 또 문제」; 『東亞日報』 1932년 9월 24일, 「문제의 소화제강소 안산에 설치결정」; 소화제강소가 만주로 가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할로 있는 것보다 만철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 계책이라는 만주국 仙石 총재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있었다. 『東亞日報』 1930년 2월 7일, 「소화제강소 안산 설치설이 점차 유력」.

103) 『東亞日報』 1934년 12월 28일. 「조선산업현황」.

104) 설립일 1919. 1.25. 자본금 500,000원, 사장 淸水榮次郎 , 본점 주소 경성부 강기정

東洋製材所(1934. 9), 中村洋行(1935. 6)등이 지속적으로 설립되었고 각 제재소가 매월 5톤부터 3천 톤까지의 편차를 갖고 제재 생산에 임하였다.[105] 그러나 신의주 측 민간 목재의 대부분이 안동 측에 매점되어 신의주 측 공장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高價를 부르는 木主의 횡포는 言語道斷의 수준"이었고 신의주 측으로서는 영림서의 餘材를 불하받기를 소원하거나 휴업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1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106]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원목유출 방지책이 거론되었으나 이는 만주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나 합법적 시행을 기다리기에 시간을 요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영림서가 목재 불하 시기를 앞당겨 조절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였다.[107]

하지만 당시 군용재의 수요 증가는 영림서의 관영 제재생산까지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자재난은 영림서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되었다. 심지어 流下材가 없어 군용재의 추가 요구와 민간업자의 불하 요망에 부응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대응하여 목재계는 당국에 이러한 사정을 동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 당국은 민간의 자재난에 동정하고 가급적 요망에 副코져 軍用材의 추가 요구에는 하등의 타개책을 강구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여 업자로부터 深甚한 관심을 얻고 있다.[108]

위의 기사는 군용재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재공급을 조선 내에서 구하지 않도록 총독부 당국에서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동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신의주의 제재업자들은 총독부가

69, 설립 목적 각종 재목 및 제재 매매, 제재의 청부 또는 벌출 ; 中島工場의 경우는『朝鮮工場名簿』1936년판을 보면 설립일이 1929년 10월, 설립자 田所喜一로, 위화면 하단리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나타나 있다.

105) 佐藤正二郎 編, 위의 책, 293쪽.

106) 『朝鮮新聞』 1933년 6월 15~18일, 「(平安北道)需用季を前に新義州木材業者の惱み(一)其の眞想 -資材難と材價高に苦しめられる民間十六工場は將に休業の悲境」.

107) 『朝鮮新聞』1933년 9월 23일, 「(平安北道)極度の資材難に惱む新義州の木商組合-打開策に全力集中 近く總督府へ陳情」.

108)『東亞日報』 1936년 7월 12일. 「新義州營林署 資材難으로 苦痛」.

취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때때로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재업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던 터였다.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조선총독부에게는 동정을 호소하였다. 예컨대 1930년 7월 당시 천여 명의 중국인 제재공이 신의주에서 종업원의 1割 減俸의 취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을 때 신의주제재업조합 소속 회사들은 조업 중지를 결정하고 "持久的" 자세로 단호하게 맞섰다. 또 전월인 6月에 감봉을 돌연 발표할 때에도 조합의 소속 회사들은 일종의 담합을 하였다.[109] 이처럼 노동문제 혹은 노동 쟁의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신의주 제재업자들은 총독부에 대하여서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한 점을 살피어 동정과 원조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온건하게 반응하였다.[110]

이후 1936년 4월 12일 열린 신의주상공회의소 긴급 임원회는 신의주 발전을 위한 5대 중대안을 심의하고 그 안건의 하나로 총독부가 관공업 공사 재료에 조선 목재를 우선 사용하는 방침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다. 즉 군수나 전매연초 포장상자 재료 혹은 철도침목 등의 관공서수요는 영림서가 직접 공급한다는 것이 불문에 붙여지던 상황에서 관영공사에 민간재를 조달해 달라는 요구였다. 여기서 1930년대 중반 국내의 민간의 수요가 민간 측 제재업의 생산에 따르지 못할 정도로 격감하였고 그에 따라 압록강재가 지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만주국 관세개정에 대한 구체의견으로 제재, 洋紙, 양말, 목탄 등에 대한 종량세를 종가세로 개정하여 세를 낮추어 달라고 청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111]

만주국 수립 이후 1938년 무렵까지 신의주에 설립되어 있었던 제재공장의 설립상황(<부표 2>)에 따르면 1932년 현재 신의주에는 총 12개의 민간 제제소가 있었고 그 중 직공 수(필자 주－상시 종업자 수) 50인 이

109)『大阪每日新聞』朝鮮版 1930년 7월 2일, 「一千の支那人製材工 一割감給で罷業 -新義州製材業組合所屬各社に對して」.

110)『東亞日報』1936년 7월 12일,「新義州營林署」.

111)『東亞日報』 1936년 4월 12일,「명일의 발전 위한 5대안 심의, 4. 조선목재사용장려 요망건」, 가결된 당일의 안에는 압록강인도교를 교통량이 많은 신의주와 안동 간에 가설하는 件 및 신의주비행장 설비 충실 件 등이 포함되었다.

상 B급의 공장은 長澤木材合資會社와 三葉商會製材所의 2곳, 100인 이상 C급 공장은 平安木材株式會社 1곳이 있었다. 그 외의 공장은 단적으로 직공 수 기준에 의해서만 나누었을 때 영세한 수준의 직공 49인 이하의 규모를 갖고 있었다. 제재업은 아무리 자체적으로 압록강산 목재를 원료로 사용한다 해도 몇 천 원 정도의 적은 자본금으로는 공장을 세우기 어려웠다. 따라서 19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1938년 무렵까지의 신의주의 제재소 현황을 보았을 때 일본인 자본의 진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선인 공장이 이를 따라가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 공장의 설립도는 낮았으며 조선인 경영으로는 義昌製材所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제재업의 사업 참여의 수순을 살펴보면 丸中商會의 경우 설립자 中込精一이 丸中材木店(1931년)을 거쳐 淺見製材所의 지배인 경력을 통해 경험과 자본력을 쌓은 뒤에 丸中製材所를 설립(1932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우선 材木店과 같은 목재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삼아 제재소 공장주로 도약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宋寬哲 경영의 義昌製材所의 경우도 그러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만주국 수립 이후 제재업이 활황을 보이면서 더욱 그러한 업종 전환을 꾀하는 사례가 늘었을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112]

한편 1936년 당시의 18개 민간 제재공장으로부터 1930년대 초에 나타나지 않았던 상시 종업자 수로 본 규모 C급 공장이 처음 등장하였다. 平安木材株式會社가 그에 해당한다. 반면에 宋寬哲을 위시한 조선인 경영의 세 공장, 즉 義昌· 協同· 永安製材所가 모두 직공 수 5~49명의 A급 영세 공장이었다. 그 중 協同, 永安 두 제재소가 1939년판『朝鮮工場名簿』에서 B급 공장으로 분류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목재가 시국자재가 되자 新義州製材合同株式會社가 전면적인 목재 통제과정에 참여하면서 그에 통폐합해야 했다.[113] 신의주제

112) 국경문화협회, 앞의 책, 1930년, 116~117쪽에 의하면 신의주의 목재업 영업자 중 조선인은 의창재목점 외에 國鉉材木店(全國鉉), 元吉材木店, 古山商店(趙尙鈺), 車文國商店의 다섯이 있었다.

113) 1938년 3월에 설립된 신의주제재합동주식회사(자본금 1,500,000원, 사장 柴田祐光)는 조선목재주식회사(1942년 2월 설립, 자본금 10,000,000원)의 5대 할당 주식회사(5社)의 하나로서 목재통제회사의 一環을 담당하였다.

재합동주식회사의 監司로 위에서 살펴 본 협동제재소의 金亨洙가, 理事로는 영안제재소의 車文國 그리고 의창제재소의 宋寬哲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중소 자본에 의한 공장이 총독부 시책에 따라 국책 대기업에 통폐합되어 갔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조선의 주요 무역품 국별 내용에서 목재 품목을 살펴보면 1936년의 목재 수이출이 4년 전인 1932년의 그 가액에 비하여 무려 2.8배로 늘어났다. 부족한 목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재 이출입량은 보다 증가하였다. 수출 중요품으로서의 목재가 신의주항 무역에서 갖는 상세 품별 내역을 나타낸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재를 위주로 한 신의주항의 목재무역품이 일본과의 이출무역에서는 비중이 적은 반면에 193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일본산 목재가 조선 국내로 이입되었다. 그리하여 목재 수이출입의 통과무역고를 보면 만주국에서의 목재 수입은 줄어들었던 데 비해 일본에서의 목재 이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114] 신의주항 목재와 목제품의 수량·가액에서 이는 통과무역 수량·가액의 증가로 나타났다. 목재 통과무역의 수량 및 가액은 전체 통과무역품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115] 그러나 해가 가면서 완만한 증가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114) 朝鮮總督府 編,『朝鮮貿易史』, 134쪽.
115) 朝鮮通過貨物重要品表,『朝鮮輸出貿易品調査表』, 1937.

<표 10> 신의주항 목재 수이출입 가액(1934~1936, 3개년)

(단위 : 원)

區分	品名		價額			區分	品名	價額		
年度			1934	1935	1936	年度		1934	1935	1936
輸出	목재합계		4,498,244	4,489,614	4,818,858	輸入	목재합계	473,596	866,973	404,660
		朝鮮産		4,471,648	4,815,343					
		日本産		17,966	3,515					
	原木		1,521,575	1,436,956	1,546,759		原木	118,575	118,779	86,517
		朝鮮産		1,436,933	1,545,655					
		日本産		23	1,104					
	挽材		1,350,834	1,446,110	1,411,325		挽材	128,374	297,229	151,315
		朝鮮産		1,445,720	1,411,240					
		日本産		390	85					
	板		943,960	981,225	1,295,403		板	188,607	426,099	81,916
		朝鮮産		980,886	1,294,768					
		日本産		339	635					
	枕木		294,683	387,531	319,597		枕木	35,650	16,685	83,062
		朝鮮産		387,531	319,597					
		日本産								
	車軸車枉材		142,967	148,906	140,382		其他	2,390	8,181	1,850
		朝鮮産		133,899	140,382					
		日本産		15,007						
移出	목재합계		8,160	4,210	34,209	移入	목재합계	17,966	32,546	40,065
	原木			3,180	23,751		原木	1,550	3,732	1,362
	挽材			570			挽材	2,280	5,189	2,886
	板			60			板	4,954	9,821	8,120
	其他		8,160	400	10,458		其他	9,172	13,804	27,697

출전 : 신의주상공회의소, 『통계연보』, 33~49쪽에서 정리.

비고 : ①판(板)은 두께를 얇게 하여 생산한 목재이고 만재(挽材)는 두껍게 자른 판을 말한다.
②車軸車枉材는 철도의 객차에 사용되어 바퀴 사이에서 차체를 지탱하는 목재이다.

<표 10>에 따르면 용재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록강 유역의 개발이 빠르게 진척하여 1930년의 목재 수출액이 138만원이었던 데 비하여 1934~1936년의 3년간에는 대략 그 세 배를 넘었다.[116] 조선총독부가 추

116)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1년판.

진한 함경선[필자 주－원산～회령, 건설기간 1914～1928년] 건설이 1928년에 완공된 데 이어 1930년대 중반에는 조선총독부의 철도망 확대 정책에 따라 목재·석탄 반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지면서 더욱 用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117]

그런데 <표 10>은 수출 가액에 대하여 조선산과 일본산을 나누어 파악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만주국에서의 수입은 줄고 일본에서의 이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통과무역고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934년～1936년간의 3년간에 걸쳐 일본으로부터의 이입 목재는 주로 원목 및 만재(挽材), 판(板)이었는데 특히 1935년의 경우 이입된 목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일본산 목재의 (만주로의) 수출가액이 눈에 띈다. 주로 재수출된 일본산 목재는 거의가 기타 목재(필자 주-여기서는 차축차왕재)였다. 비록 3개년의 단기간의 가액을 통해서이지만 이를 볼 때 이입 목재가 재수출된 것으로는 원목은 거의 없었고 제재되었거나 조선에 와서 일차 가공된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조선으로부터 만주로 재수출되는 방식이 아니었겠는가 생각된다. 또한 일본산 목재의 이입 증가는 목재수급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그 이입량의 절반에서 점점 더 많은 수량이 조선 국내의 수급의 불균형을 맞추는 데에 충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재의 이러한 수이출입 추세는 민간 제재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 제재업은 일본인 경영의 대규모 제재공장으로 집중되어 가는 가운데 조선인 중소 공장은 도태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신의주 목재 자본가들은 목재상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재상조합을 앞세워 각종 현안에 대처하였다.

117) 1927～1938년에 실행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따른 산업철도 부설에 대하여는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 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50～157쪽 참고.

2) 木材商組合의 활동과 일본인 자본의 독점

1927년 11월 인가된 신의주상공회의소는 신의주의 조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조선인 회원 수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신의주상공회의소의 會頭를 비롯한 주요 임원은 거의가 목재업의 巨頭라 할 加藤銕治郎, 長澤記代司, 中込精一 등의 일본인 대자본가들이었다.[118] 일찍이 신의주목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목재 매매 등에 관여했던 加藤銕治郎이 신의주상공회의소 제1회(1927년)부터 제4회(1935년)까지의 全回에 걸쳐 회두를 맡았다. 부회두나 선거위원장 직책 역시 정해진 소수의 일본인들 상공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눠 차지하였다.[119] 주된 이유는 이들 목재 상공업자들이 영업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은 1937년 당시 신의주 자본가들의 영업세 납부액이다.

<표 11> 1937년 신의주 목재상공업회사 영업세 납부액 순

순위	상호	대표자 성명	공장소재지	1937년도 영업세 (엔)
1	鴨江木材株式會社	横江知通	新義州府鴨川町 1	71,337
2	平安木材株式會社	田中喜一	新義州府麻田里 401	67,873
3	杉原合資會社出張所	阪谷宇吉		63,358
4	北營木材株式會社	木村七郎		51,724
5	表谷木材合資會社	表谷佐平		29,556
6	柴田製材所	柴田祐光	新義州府濱町 1丁目	27,360
7	長澤木材合資會社	長澤照男	新義州府鴨川町	23,809
8	國鉉商會	全國鉉*		20,400
9	昭和木材合資會社	高木延藏	新義州府鴨川町 1丁目	19,296

118)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會議所十年誌』, 1937, 40~45쪽.
119)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67~68쪽.

순위	상호	대표자 성명	공장소재지	1937년도 영업세 (엔)
10	古山商店	趙尙鈺		15,000
11	合資會社丸中商會製材所	中込精一	新義州府本町 1	14,914
12	武內製材所	武內吉之介	新義州府綠町 1丁目 25	14,144
13	多田林業合資會社	多田榮吉		10,400
14	義昌製材所	宋寬哲	新義州府濱町 1	9,800
15	靑山材木店	鄭載曜*		4,992
16	信成材木店	田泳杓*		4,800
17	近藤商店	佐藤淸一郞	新義州府常盤町 6丁目	3,870
18	藤本材木店	藤本文次郞		3,840
19	旭木材株式會社	丸田信太郞		3,713
20	東洋製材所	金永基*	新義州府濱町 1	3,200
21	共林木材商會	金亨根*		2,920
22	義信材木店	金日鉉*		2,340
23	丸重材木店	康信鴻*		1,200
24	義山材木店	金基德*		1,140
25	秋田商會木材株式會社出張所	內田勇		1,125
26	近藤商店	近藤淸一	新義州府濱町	840
	王子製紙朝鮮工場			
	朝鮮燐寸株式會社新義州支店		新義州府鴨川町	
	大二商會安東出張所中島工場	村上弘一		

출전 :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案內』, 1938, 31～33쪽, 『朝鮮工場名簿』, 1936에서 정리.

비고 : ① 대표자가 조선인인 기업은 "*" 표시. 그 외는 모두 일본인이 대표역을 맡은 기업이다.

②순위에 없는 王子製紙朝鮮工場과 朝鮮燐寸株式會社 및 大二商會安東出張所中島工場은 일본기업의 국내 공장[지점]으로 영업세 납부에서 제외되었다.

③杉原合資會社는 대구에 본점을 둔 제재회사[설립자 杉原長太郞]였고 北營木材株式會社[대표 木村七郞]는 목재판매회사로서 '北營'은 '共營'의 誤記로 보인다.

<표 11>에 나타난 영업세 납부액이 고액인 회사 또는 인물 중에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호황기에 힘입어 탄생한 목재업계의 대표자들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영업세 납부액 상위 1～10위의 회사가 낸 영업세 납부액의 합계가 전체 합계액의 79.2%에 달하여 상위 기업에 부(富)가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재·제재업은 규모와 자본금 면에서 일본인 기업에 지배되어 있었다. 상위 20위권 안에 國鉉商會, 古山商

店, 義昌·東洋製材所, 靑山·信成材木店 등 6個所만 조선인 경영의 것으로 나타난다.[120] 목재・제재업의 발전을 통해 얻어진 신의주부의 경제적 팽창이 일본인을 위주로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의주상공회의소의 활발한 활동 역시 부분적으로는 조선인 자본가가 입게 될 혜택을 포함하였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이끌었던 신의주의 일본인 자본가와 그들의 회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21]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3월에 조직되었던 신의주목재상조합은 신의주상공회의소의 주요 인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동업조합으로서 목재・제재업에서도 가장 수익구조가 컸던 목재상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였다.

사실상 영림창이 신의주에 세워진 1908년 이래 영림창 사업 확장은 지속적으로 신의주의 목재상과 민간 제재업자들 다수의 이익 여하를 규정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재상조합이 관여한 이익 수호 운동의 하나는 영림서 제재부에 관한 것이었다.

1934년 10월 영림서가 군용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4공장을 신설하고 있을 때 돌연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영림서 제1제재공장이 완전히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였다.[122] 그러자 그동안 영림서에 억눌려 왔다고 여긴 민간 제재업자들이 그간의 영림서 제재부 폐지 혹은 축소론을 바탕으로 그 복구를 저지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은 바로 木商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목재상들의 움직임에 따라 같은 달에 신의주상공회의소가 임원회를 연 결과로 상공회의소 회두 加藤은 총독부에 진정차 경성에 갔다. 신의주 목재상들은 민간업을 압박하는 영림서 관영공장의 존속은 종업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영공장으로부터 저가의 제재를 공급받아 독점 판매하던 대규모 거래자들, 즉 특권 상업 자본들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단언하

---

120) 古山商店의 趙尙鈺은 新義州商議 경력으로 道平.道議에까지 진출하였다. 高秉哲, 白基肇 2명도 그러하였다. 董宣熺,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224쪽; 國鉉商會의 全國鉉은 협동제재소의 중역 및 新義州酒造 株式會社(자본금 125,000원, 1940년)와 高菱機械工業(株) (자본금 199,000원, 1941년, 高菱式 목탄 가스 발생기 및 제 기계 제작)의 이사직에 있었다.

121) 신의주의 상공단체로 중국인측에는 中華商務會가 있었고 일본인 측에는 繁榮會라 부르는 단체가 따로 있었다. 장성식, 앞의 책, 177쪽.

122) 『東亞日報』 1934년 10월 2일, 「新義州 營林署 猛火에 包圍」;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1938, 82쪽.

며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23] 영림창 제재부의 화재는 그보다 20여 년 전인 1912년 3월 28일에도 일어난 바가 있었는데 제 1공장 1棟의 소실로 제재력에 큰 감소를 보았었다.[124] 그 당시로서는 민간업의 성장이 미약하여 영림창 제재부의 존폐를 거론하는 운동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압록강변 목재상공업의 성장의 폭이 컸으므로 자신들을 압박하는 官業의 횡포에 대해 民業 압박의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영림서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1924년에도 안동 제재동업조합측에서는 불황타개책을 강구하던 중 영림창 제재소의 존립이 민간업의 진흥을 가로막는다고 하면서 총독부에 그 철폐를 청원한 바 있었다.[125]

한편 1934년 당시에 영림서 제재공장의 축소 및 폐지 운동에 있어서는 신의주목재상조합과 신의주상공회의소가 연합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안동의 목재업자도 같은 보조를 취하자는 입장이었다. 만주와 조선 제재계에 똑같이 군림하는 신의주 관영제재에 대한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주 목재업자들도 日滿木材協會와 만주목재상조합 등이 나서서 만주산 목재의 조선 내 진출을 방해하는 영림서 제재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넣으며 당국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126] 그러나 이러한 안동・신의주 제재업자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림서는 소실된 공장에 대한 복구를 강행하고 말았다.

위와 같이 영림서 제재부의 증설에 반대론을 가했던 신의주목재상조합은 만주국 수립 후의 각종 건설을 위한 목재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의 목재 수급이 불균형해지자 1926~1927년 당시와는 정반대로 원목유출 방지책을 추구하였다. 만주사변 발발 이후 영림서가 해마다 만주에 군용재

---

123)『東亞日報』1934년 10월 6~7일,「민간제재업 발전상 營林署 제재부 철폐하라」.

124)『每日申報』1912년 3월 30일,「營林廠의 大火」, 당시 화재로 인해 영림창은 13만원의 손해를 입었다;「영림창사업개황」,『朝鮮總督府官報』제575호, 1912년 7월 26일.

125)『每日申報』1924년 8월 29일,「營林廠製材所撤廢, 民業の一大脅威とあって安東縣木材業者の請願」.

126)『鴨江日報』1934년 11월 11일,「日滿木材と滿洲木材同業組合が 新義州官營製材所廢止を請願」.『朝鮮新聞』.

를 공급함에 따라 목재상조합이 추구한 목표는 만주국 내의 수요는 만주산 목재로써 충당하고 원목의 만주 유출을 저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신의주와 안동 양측 공장의 생산비는 거의 동일하였으나 만주국 관세가 원목에 대해서는 척체 당 3,40錢이나 제재는 관세가 1圓 70錢 내지 90錢으로 그 점이 약점이 되어 신의주 공장은 채산이 못 되었다.[127] 이로 인한 원목 유출 증가는 조선 내의 자재 결핍을 가져 온 결과 목재 가격의 폭등을 야기하였다. 만주국의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개정 건은 신의주 상공회의소가 1933년 6월에 열린 조선 상공회의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일종의 사회문제로 거론하여 전조선적 문제로 보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총독부에 진정할 것이 결의되었다.[128] 여기서는 신의주 상공회의소 이사 有馬泰가 같은 해에 한 寄稿의 내용에 입각하여 목재 관세문제의 상황과 목재상조합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129]

기고에 따르면 만주국 관세를 일본과 동일한 종량세를 적용하여 원목과 제재 관세를 1對 1.62로 하더라도 제재가 관세가 적은데, 더구나 관세 수입을 유일한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주국에서는 원목 관세는 종가세로 시가의 1할로 하지만 제재는 從量稅로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압록강 조선 측의 민간재의 착벌 70만 척체 중에서 그 7할 이상인 50만 척체가 원목으로 만주국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고율 관세 때문에 제재로 수출되는 것은 거래가 되지 않고 반대로 자재가 될 원목은 4원 50전, 5원이라 해도 미증유의 고가로 날개돋힌 듯 對岸으로 수출되니 원목으로 수입하여 제재하는 만주 제재업자와 조선 내의 소수 원목 수출업자만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만주 측의 관세정책이 만주 목재업자로 하여금 제재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조선산 원목을 수입·가공하여 조선으로 재수출하거나 만주산 제재목을 수출하는 구조를 띠게끔 조장하였다. 그로 인해 조선의 목재업자가 채산이 맞지 않게 되었으며 목재의 자급자족정책이 근저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

127)『東亞日報』1933년 6월 13일,「新義州 木材界 採算不能의 窮境, 資材難과 關稅高로」.
128)『東亞日報』1933년 6월 23일,「全朝鮮商議總會 諸議案 可決, 修正」.
129)『京城日報』1933년 11월 16~17일,「原木の禁止的制限- 關稅の改正なき限り當然」.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는 상공회의소와 목재상조합 외에도 鴨綠江木材産業組合長 多田榮吉 역시 만주국 수입관세가 원목과 제재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제재의 수입세를 일본의 목재 수입과 동액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원목의 수입세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여 결국 제재와 원목과의 수입관세가 균형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130] 이런 점에서 입장은 같았다. 하지만 多田榮吉은 3년이 지난 후인 1936년에 조선산업조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회 발언에서 원목의 만주 유출 방지책을 추구하는 입장을 재차 취하였다. 당시 多田榮吉은 국내 판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목재상의 대표로서 영림서가 關東軍用材를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유삼림의 입목 불하를 받는 상업자본에 대해 원목의 만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자고 제안하였다.[131]

하지만 有馬泰는 위에서 인용한 기고를 통해 원목유출 금지론은 견강부회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상공회의소 이사로 재직하였던 有馬泰는 신의주 제재업계의 이익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당시 만주국의 목재 수요가 관동군 군용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며 만주국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상당히 많은 점포, 주택, 공장 등 민간의 제재수요가 생겼던 상황 자체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有馬泰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조선 내 목재의 자급자족과 만주의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재계의 이익 보장이라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성취할 최선의 대책은 목재 관세를 일률적인 從價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원목과 제재 양자가 다 같이 만주국으로 수출되게 해 달라는 청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원목의 만주 유출을 둘러싸고 신의주의 목재 자본가들은 서로의 입각점을 달리 하였다. 상공회의소의 전체적인 목표는 원목이든 제재이든 거래를 늘려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성을 중심

130)『鴨江日報』1933년 11월 16일,「對滿木材輸出禁止に關する多田榮吉氏の私見を讀みて」.
131) 조선총독부,『조선산업경제조사회 회의록』, 649~650쪽,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 앞의 책, 106쪽에서 재인용; <조선산업경제조사회>는 일본이 만주사변이후 자신을 둘러싼 모순을 조선의 병참기지화에서 돌파해보고자 하는 방향 하에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것이었다.『東亞日報』1936년 8월 26일,「산업경제조사회 총독부에 설치 결정」.

으로 한 국내 수요의 목재를 공급하는 압록강재의 판매자로서 목재업자들도 다수가 있어서 그들 또한 이익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주의 민간자재공장이 자재를 사들이지 못하여 휴업이나 마찬가지의 비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신의주 재계 내에는 제재 생산업자와 목재 유통을 담당하는 목재상의 상호간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후로도 목재상조합장 表谷佐平은 만주국 내의 수요는 원칙적으로 만주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로써 충당하고 조선의 목재는 관·민재가 모두 조선 내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목재 기근의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을 주장한 바 있다.[132] 목재상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총독부에 청원 형식으로 제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재상조합은 만주-조선 관계를 고려한 위에서 신의주 목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였다.[133] 앞선 1931년에도 목재상조합은 연해주재, 사할린재의 수입 철폐를 陳情하는 활동으로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였다.[134]

한편 신의주를 대표한 동업조합 중에는 신의주제재업조합도 자신들이 신의주 경제계의 命脈이라 할 중요 임무를 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135] 1930년 현재 신의주부내의 동업조합은 모두 10여 개였는데 그 중 목재업조합과 제재업 조합의 조합장을 모두 橫江重助가 맡았으며 米穀商

---

132)『朝鮮新聞』1939년 4월 21일. 이 내용은 朝鮮木材商組合聯合會 제1회 總會에 제출한 要旨이다.

133) 신의주상공회의소가 1938년에 간행한 『신의주상공안내』에서는 신의주목재상조합의 회원 수가 28명, 1942년에 간행한 『新義州商工要覽』에 의하면 1941년 말 목재상조합의 회원수가 80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전과 달리 목재상조합 등을 동업조합과는 별도로 任意組合[신의주부 내에 150여 개]으로 파악하였다. 동업조합으로는 平安北道石炭統制同業組合과 平安北道蠶種同業組合 2개만을 들고 임의조합과 별도로 구분하였다. 임의조합의 특징을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한다면 회원 수의 급증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추후 확인이 더 필요한 점이다.

134)『東亞日報』1931년 9월 3일,「外材輸入問題 贊否兩派陳情」, 연해주재의 조선진출에 대해 신의주·안동 방면의 목재업자들은 그 철폐를 진정하였으나 조선 내의 林産으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산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그 수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진정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압록강재 유치에 대한 찬반 양자간의 분규가 표면화하면서 그 차이가 중대시되는 상황이 왔다.

135)『京城日報』1931년 11월 7일, 筆者 橫江重助,「(平安北道)新義州を語る(二)新義州經濟の命脈製材業組合の立場」.

組合은 多田榮吉이, 精米業組合을 阿部敏男이, 그리고 鐵工業組合은 中込精一이 조합장이었다.[136] 신의주제재업조합은 신의주의 제재업자 15명으로 목재관세문제가 표면화되었던 1926년 9월 당시 多田榮吉을 조합장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조합 내에는 주식회사가 3, 합자회사가 7개소가 있었으며 종업원이 1,800명(불황기였던 1931년 당시는 1,200명)으로 그에 딸린 가족 및 직접간접의 관계자를 더하면 약 3만 5천 명이라고 할 형세를 보였다.[137] 이들 동업조합들의 중심인물들은 다시 신의주상공회의소를 주도하는 회두, 부회두 등의 임원이 되었다.

이처럼 목재・제재업 관련 기업인이 사실상 상공회의소 및 동업조합을 주도하였던 신의주에서 공업 인구의 증가가 공업인구의 구성비에서 상승을 보인 것은 주로 1930년대였다. 1920년대 내내 부침을 반복하던 목재업의 경기를 따라 공업인구 구성비도 10% 초반 대를 전후하여 그 흐름을 유지하다가 공업인구의 구성비가 10.5%(1930년)에서 22.6%(1935년)로 5년간 약 12.1%가 증가하였다.[138] 상업교통인구 구성비를 이에 더하면 전체 인구 중 60% 이상이 商工・交通業에 종사하였다.[139] 상공·교통업자의 인구 비율이 1926년에서 1934년까지의 기간에 4% 증가했고 그만큼의 비율인 3.6% 정도의 기타유업자 비율 감소분이 확인된다. 1934년에서 1935년 사이의 일 년간에 공업인구가 9.1% 증가한 것과 기타 유업자 비율이 10.2% 감소한 것 역시 工商 호구 수의 증가로 기타 유업자들이 轉業하고 있었던 상황의 반영으로 보인다.[140] 이 과정에서 신의주의 공업발전 추이는 <표 12>에서 보듯 목재업의 성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

136) 國境文化協會, 앞의 책, 139쪽.

137) 1926년 설립 당시는 조합장이 多田榮吉, 1931년에는 橫江重助, 그리고 1938년 당시에는 柴田祐光이 조합장을 맡았다.

138) 장성식, 앞의 책, 93~94쪽; 신의주상공회의소, 『신의주상공요람』, 1938, 18~19쪽.

13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에 의하면 1934, 1935, 1936년의 3개년간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구성 비율에서 공업인구의 비율은 각각 2.36%, 2.54%, 2.78%로서 그에 대하면 신의주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1~18배 높다.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일제강점 말기까지 전체 조선인의 인구구성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신의주의 경우에는 1~2% 가량으로 비중이 극히 낮았다.

140)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37년, 37쪽과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942, 18~19쪽.

<표 12> 1934~1936년 신의주부 주요 공산품(3개년 간)

품명(수량 단위)	연 도	수 량	가 액 (원)
목재(㎥)	1934	331,521	9,945,630
	1935	320,114	9,765,200
	1936	303,165	9,701,280
精玄米(石)	1934	135,000	4,050,000
	1935	79,816	2,316,664
	1936	58,313	1,630,238
洋紙(听)	1934	35,766,254	2,605,515
	1935	34,447,988	4,237,102
	1936	35,954,913	4,080,123

출전 :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案內』, 1940, 78~80쪽.

<표 12>에 따르면 목재업의 생산가액이 신의주의 2대 산업인 정미업의 산액 대비 1934년에 2.45배, 1935년에는 4.21배, 1936년에는 5.95배를 점하여 공업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업종 분포가 제재·목공업을 위주로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신의주부의 공산액은 공장 수, 종업원 수, 자본금 및 생산액 모든 면에서 목재업종이 재계의 선두에 있었음이 뚜렷하였다.[141] 1933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조선의 제재업 공장 수가 65개, 1935년에 8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신의주의 제재공장이 14~15개로 조선 전체의 17~20%를 점하고 있었다. 목재관계품의 다음은 제지, 정미, 철공 등이 점하였다. 그야말로 '목재 도시' 신의주부는 제재공업에 전부의 "사활문제가 달려" 있었다.[142]

그러나 목재는 신의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한 만큼 일본인 자본의 침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다음의 記事가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이 목재는 筏夫들이 봄부터 압록강이 결빙되기 전까지 매일같이 강 아래로 아래로 띄워내려 압록강 철교를 지나 영림서에 가 닿는다. 이 곳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의지하여 뗏목은 제재되어 조선 각지로 운반되는 것은

141)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案內』, 1940, 76~78쪽.
142) 『동아일보』 1936년 4월 12일, 위의 기사.

물론 2,3年 來로는 만주 방면에 군수품으로도 많이 수출된다. 일방 이 뗏목은 신의주에 있는 왕자제지회사에서 "펄프"로도 제조되는데 이 목재업은 대개 관영과 일본인 측에 옆눌리어 조선인은 손 댈 자리가 없다.[143]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 제재·목재업 성장의 소득은 일본인 자본에 "옆눌린" 조선인 기업의 차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로 중소 규모의 기업이었던 이들 공업이 흥성한 배경은 일본에서 유입한 자본금은 아니었다. 일본에서의 유입자본금이 직접 투자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인 회사(일본인이 社主 또는 설립자)의 경우 조선 내, 그것도 거의 신의주부 내에서의 자금 축적 및 조달에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多田榮吉, 表谷佐平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목재·제재 등의 동업조합장에 겸하여 미곡상조합, 정미업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들은 곡물상으로서 신의주에서의 재계 활동을 시작하였다.[144] 예를 들어 자본금 30,000원의 多田商會精米所를 보면 1910년 11월 설립 이래 3개년 간에 걸쳐 보인 정미소의 생산가액의 합계가 811,600엔이었다. 이는 多田榮吉이 1915년 8월 창립한 신의주목재상회의 자본금 1,000,000원의 본원적 축적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45] 신의주의 일본인 자본가들이 신의주 내에서 곡물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충실한 기반으로 삼고 그들이 필요한 기업자본금을 축적하거나 생산과 확장에 필요한 투자금을 조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3>은 1930년대 조선공업화 시기에 신의주의 제재공장들이 기업합병이나 일본인 회사와의 연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였을 가능성과 관련된다.

---

143)『東亞日報』1934년 1월 2일,「평북의 특산물」.
144) 『시대일보』1924년 5월 14일,「신의주, 정미조합 창립」.
145)『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多田榮吉은 1918년 10월 신의주미곡상조합의 설립 및 1922년 1월의 미곡현물시장 개설 인가를 이끈 장본인이었다.

<표 13> 1932~1939년 신의주 제재업 직공수 구분별 공장 수

(단위: 개)

구분 \ 연도		1932	1934	1936	1939
제재소 수		11	13	15	15
직공수 구분	A	8	7	10	7
	B	2	5	4	6
	C	1	1	1	2

출전 : 『朝鮮工場名簿』 각년판.

비고 : 직공 수는 『朝鮮工場名簿』가 채택한 구분을 따랐다. A : 5인 이상 49인 이하, B : 50인 이상 99인 이하, C : 100인 이상 199인 이하.

<표 13>에 따르면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신의주 제재공장들은 직공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공장이 줄어들고 직공 수가 그보다 많은 중대규모의 공장으로 합병되고 있었다. 직공수가 가장 많은 대규모 공장 "1"은 1936년에 이르기까지 내내 변동 없이 橫江重助가 설립한 平安木材株式會社製材所였다. 1939년경 鴨江木材株式會社가 그에 추가되었다. 平安, 鴨江 이 두 개의 제재회사는 1930년대 후반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신의주의 제재계의 선두에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창제재소의 설립자 宋寬哲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로서의 역사에 순응하였다. 1931년에 『新義州大觀』에 실린 각계 인사의 논평에서 조선인 경영 유일의 의창제재소 경영에 대한 포부도 밝힌 바 있던 그였다. 하지만 일본인 대자본 지배구조의 독점이 강화되던 전시경제하에서 그 역시 독점자본의 이해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糾合"을 단행하였다.[146] 신의주의 조선인 자본을 대표하였던 그가 1930년경에 설립한 의창제재소는 1932년 『朝鮮工場名簿』에 의하면 어떠한 사정에서든 李魯洙라는 인물에게 넘어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33년 4월에 의창제재소는 다시 宋寬哲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송관철은 1938년 3월경부터 신의주제재합동주식회사와 신의주목재판매주식회사[필자 주－대표자는

146) 장성식, 앞의 책, 181쪽; 신의주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1938, 108쪽; 宋寬哲에게는 1923년 개벽지 신의주지사 總務이자 記者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었다. 『개벽』 제23호, 1922년 5월 1일 「新義州支社」.

表谷佐平, 자본금 150,000원]의 이사로 재임하였다.[147] 더불어 府協議會議員을 역임하였다. 전시공업화 시기에 그가 제재소 지분을 유지하는 대신에 일본인 경영의 국책 회사인 대규모 회사에 합치는 길을 택하는 한편 지방의원직의 수행을 통해 일제 당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초기 회사령 시행 10년간은 회사령의 질곡을 뚫고 어렵게 인가를 얻어야 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대자본의 조선 진출이 활발해지고 1930년대 그러한 흐름이 가속화되자 어느 정도 식민체제에 대한 순응성을 내면화하였다. 그러한 추이 속에서 신의주의 조선인 중소 목재업 자본은 기업 통폐합 추세에 부합해 갔던 것이다.

다음은 백두산 부근의 有數한 大森林, 압록강 유하의 목재에 각별한 애착을 담은 張晟栻의 토로이다.

> 백두산 부근의 대삼림이며 압록강 유하의 大材木은 세계의 寶庫- 億年無盡-로서 과연 국경의 삼림은 세계에 소리쳐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이 우리의 것이냐 물을 때 기가 막힌다. 그 경영자들은 누구이며 이용자는 누구이며 取食者는 누구이냐 할 때에는 그만 가슴을 치고 싶게 된다. 보고야 보고 아니랴마는 우리에게 무엇이 보고랴.[148]

신의주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張晟栻의 탄식은 다음의 記事에도 일맥상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 호수에 있어서는 조선인이 일본인의 근 4.3배, 중국인의 7배가 많으며 인구에 있어서는 조선인이 일본인의 4.6배 많고 중국인의 6.5배 많다. 그러

147) 신의주상공회의소, 『신의주상공안내』, 1942년 자료에서는 신의주의 제재공장을 파악하여 영림서 3개 공장을 분리하지 않고 관·민재 공장을 통틀어 10개 공장으로 기재하였다. 그 중 신의주제재합동주식회사의 각 공장과 丸中商會를 민영공장으로 들고 있어 제재합동회사가 이전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규모의 제재소들을 끌어 모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937~1941년의 5개년 간의 제재수량을 평균 약 696,824 척체로, 5개년 간의 평균 착벌 수량을 약 1,051,939 척체로 추산하였다. 1935년에 영림서 제 1 공장이 확장되면서 영림서만 年 생산 40만 척체 내외의 제재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69만 척체에서 40만 척체를 뺀 수량이 민간업의 제재수량이라 볼 수 있겠다.

148) 張晟栻, 위의 책, 1931, 121쪽.

나 경제상으로 이를 다시 비교하여 보면 인구의 비례와는 뒤바뀌어 신의주의 발전이라는 문구는 결국 일본인의 번영이라는 '시노님'(동의어)이 되어 버린다. … 어느 인종이 많이 놀고 즐기는가를 보기 위하여 助興稅를 들어 보니 조선인 540원임에 일본인 2,000원, 외국인 60원이다. 돈 많은, 잘 노는 것은 그리 기이한 일도 아니면서 이는 저윽히 적적한 느낌을 품게 하는 사실이다.[149]

위 기사 역시 신의주의 발전이 결국 일본인의 번영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이어서는 府稅 부과금 중 雜種稅의 한 종목으로서 妓生을 부르는 유흥자에게 부과하는 助興稅를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많이 내며 일본인이 그만큼 경제력 규모가 월등다고 지적하였다.[150] 여기서 기사는 신의주부의 府稅金表를 함께 실고 있다. 민족별 세금 납부액을 보면 당년인 1932년의 조선인 인구의 2할을 차지한 일본인의 납부액은 조선인 납부액에 비하여 영업세 2.4배, 호별세 1.8배, 總稅 2배 및 조흥세 3.7배의 액수를 보였다.[151] 조세부담상의 양 민족의 차이를 통해 1930년대 조선 공업화의 영향으로 신의주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면서도 여전히 일본인이 우위에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152]

이처럼 신의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일본인의 차지가 되었던 식민지 공업이 만들어 낸 이윤의 기초는 노동임금에도 있었다.[153] 신의주 인구의

149) 『東亞日報』 1933년 6월 1일, 「발전되는 신의주, 人口는 四倍强, 稅金은 日本人이 倍, 結果는 누구의 繁榮인지?」.

150) 조선총독부령 제3호 『부제시행규칙』, 1914년 1월 25일, 金泰雄, 앞의 책, 2012, 476쪽에서 재인용; 일제는 부세부과에 대해 규정하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찾아내어 잡종세란 이름으로 부과하였다.

151) 1932년 말 신의주부의 조선인 인구는 35,540명, 일본인 인구는 7,695명이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판.

152) 1926년 이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이전처럼 府別로 직접세 부담액을 표시하지 않고 소득세 납부별 인원을 도별 및 액수별로 추산하였다. 영업세 또한 제조업으로 포괄하여 나타내어 신의주부만 따로 볼 수 없다. 『신의주대관』 155~159쪽에 의하면 1930년 말 현재 諸 稅金에 있어 일본인이 조선인의 대략 4.5배를 부담하고 있었다.

153) 인력 제재인 木挽에 대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는 점차 좁혀 가면서도 지속되었다. 1926~1935년의 십 년간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 임금은 52~59%, 1936~1941년의 기간에 61~77%로 낮았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5년도판 및 1941년도판; 萩野敏雄, 裵在洙 編, 앞의 책, 2001, 124~125쪽.

8할을 차지하는 것은 米價 폭락으로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모여 든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銀價 폭락 등의 원인으로 신의주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도 적지 않았으므로 그들 간의 경쟁이 심하여져 勞賃은 헐하게 되었다.[154]

<표 14> 신의주 제재공·제지공의 민족별 일일 임금 비교

(단위: 원)

구 분 \ 연 도		1930	1939	1940	1941
제재공	일본인	2.86~1.26		2.15	2.47
	조선인	1.96~0.22	1.80	2.00	2.30
	중국인	2.33~0.34	1.87	1.75	2.01
제지공	일본인	3.46~0.70	3.91	4.14	4.32
	조선인	2.27~0.33	2.31	3.26	3.68
	중국인	2.35~0.32	2.28	2.90	3.32

출전 : 국경문화협회, 『新義州案內』, 1930, 148쪽, 신의주상공회의소, 『新義州商工要覽』, 1942, 107쪽.

<표 14>에 따르면 1930년 당시 제재공이나 제지공은 벌목공이나, 소목장이, 혹은 톱질공에 버금가는 勞賃을 받는 직종이면서도 민족별 차이에 따른 노임의 차이를 감내하여야 하였다. 즉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임 제재공이나 제지공은 조선인에 비하여 두, 세 배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받았다. 1939년 이후의 노임 역시 1930년 당시 최고 수준에 비한다 해도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39년에 평안북도 내의 각종 공사가 격증하여 노동자 대부족이 초래된 결과 신의주내 제재공장들이 노동자쟁탈전을 벌이며 임금인상이라는 방법을 쓴 이후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저임금이다.[155] 그마저도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최대 59%까지 저렴한 임금을 받았을 정도로 민족별 노동자의 차별 또한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을 제약하는 조건이었다. 1934~1936년의 3개년 간 대두 1되의 평균 소매가가 11~15원, 1938

154) 張晟栻, 앞의 책, 183~185쪽. 1930~1931년 사이 중국인 인구는 5천~7천 명, 그 중 노동자는 2~3천 명을 헤아렸다.

155) 『東亞日報』 1939년 6월 29일, 「新義州各製材工場 노동자쟁탈전 업자 會合코 防止中」.

년에 14~16원이었다.[156] 하루 실질임금이 1.8~2.3원으로 생존수준 정도 밖에 지급받지 못한 신의주의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정도는 매우 낮았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자본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었던 식민지적 산업구조 안에서 민간 자본에 의한 제재업이 그 생산력을 키워 나갔던 1920~1930년대 중반의 신의주는 조선인 인구의 증가로 점차 수적으로는 일본인들을 능가하였으나 재력과 권력의 차원에서는 일본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교통과 수운이 발달한 신의주에서 생존을 위하여 목재를 벌채하고 유하하는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조선인 筏夫들, 그들은 주민의 過半으로서 그야말로 목재사업에 생활을 부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모든 융통이 계속되었다.[157] 이들 조선인 벌부들에서 제재공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자의 수는 조선인 전체의 인구 증가와 함께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생존 수준의 저임금에 고정되다시피 한 실질임금이 소득 상승효과를 제약하였다. 식민지 피지배국민이었던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가 통치의 거점으로 삼은 부내의 일본인들의 성장에 가로막혀 신의주의 목재업 발전이 낳은 수익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156) 신의주상공회의소, 위의 책, 1940, 54~55쪽.
157)『東亞日報』1930년 10월 12일,「過冬念慮되던 殘筏 不時秋雨로 流筏」.

4. 結語

본 논문은 일제 강점 이래 압록강유역 삼림지대를 근간으로 하여 성장한 신의주의 목재업계의 변동과 자본가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일제 강점 초기 일본인이 중심이 된 목재회사를 세우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대규모 공장이 세워진 1930년대 중반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영림창이 지정상주의로의 전환을 택한 1916년 이후부터 회사령이 폐지된 1920년대 초에 이르러 일본의 민간 대자본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초기의 임업회사와 목재판매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왕자제지주식회사조선공장이 조선제지회사를 합병하였으며 일본인 자본이 목재 관련업에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영림창 목재의 절반가량은 왕자제지에 불하되었으므로 영림창 제재 사업의 확장으로 餘材가 줄자 민간업은 자체의 유하수량을 늘리면서 제재 생산량 증가에 대처하였다. 그에 따라 민간 제재 생산력은 급격히 성장하여 영림창과의 생산단가의 격차도 좁혀졌다. 아울러 목재계가 일본 재계의 공황 및 시세의 변동을 벗어난 데에는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지진의 발생으로 인한 복구 수요의 발생이 큰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신의주의 조선인들도 재목점을 차리기 시작하고 제재소 경영에 뛰어들 준비를 하였다. 그보다 먼저 공장 설립에 나섰던 일본인 자본가들은 제재계를 중심으로 연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25년 7월의 鴨江木材株式會社의 설립이 그 결과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재업은 신의주 공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26년부터 1931년 9월의 만주사변 발발 사이의 기간에 민간 공장의 목재 수량은 영림서에 맞서는 형세를 보이면서 증가하였다.

한편 1920년 8월의 관세 개정에 따라 일본과의 관세제도가 통일된 후 신의주항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가 증진되는 가운데 만주산 목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세입 증대를 통한 식민 통치 안정화를 목표로 관세특례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어 온 만주 안동산 목재에 대해 과세를 시도하였다. 신의주 상공인들도 목재 수입액의 증가에 대응하

여 목재 관세특례 폐지를 목표로 힘을 모았다.

따라서 1920년대 후반에 아래로부터 제기되었던 無稅의 안동수입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총독부의 과세 시도에 힘입은 결과 안동의 일본인 제재업자 등의 반대를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1929년 3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만주 측에서 그에 대하여 최초 3년 간 3할 과세를 유보시키고 보조금 지급으로 맞서자 신의주의 민간 제재업자들은 다시 보조금 폐지운동을 벌여야 했다. 그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그간 미루어져 왔던 신의주상공회의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의 민간 제재공장의 설립 상황에 있어서도 조선인에 의한 제재소 설립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일본인 자본과 관영 공장이 생산액 전체를 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세한 조선인 자본이 제재업 부문에서 규모와 자본금 모두 우세한 일본인 자본을 능가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木都' 신의주에서 목재·제재업 성장을 통해 얻어진 신의주부의 경제적 팽창으로 얻은 이익은 조선인의 것이 되기에는 많은 거리가 있었다.

1932년의 만주국 수립 이후에 민간 제재업자들은 자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림서 제 4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신의주 목재계는 영림서 제재부 축소 또는 폐지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안동의 목재 자본가들도 보조를 맞추었다.

아울러 신의주상공회의소의 제재업자들은 만주국 목재관세 개정 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원목과 제재의 만주국 관세를 일률적으로 종가로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신의주목재상조합측에서는 원목 유출 방지를 대책으로 거론하여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일본과 조선 및 만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병합하려는 일제의 정치적·군사적 목표가 뚜렷하여지자 사실상 신의주의 민간 공장들은 영림서의 불하와 총독부의 선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신의주목재상조합을 비롯한 동업자 조직 및 신의주상공회의소를 주도한 일본인 자본가들은 내적 단결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공장으로 제

재소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건축과 토목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제재업이 활황을 보이면서 1932년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상시 종업자 수로 본 규모 C급 공장으로서 처음 대두되는 平安木材株式會社製材所가 대표적이었다. 중·일전쟁기를 전후하여 일본인 자본 위주의 신의주 재계는 결국 양극으로 재편되어 갔다.

더불어 신의주항 무역액과 통과무역고 면에서 목재 이입 무역량이 이출 무역량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시경제 체제 수립을 앞둔 1930년대 중반에 이르자 일본산 목재가 목재 수요의 일부를 충당할 정도로 국내 목재의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영림창(필자 주-1926년 영림서로 개편) 관업의 압박은 민간 목재·제재업의 성장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었다. 영림창 사업이 입목 처분 및 벌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직영의 제재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의주에 투자한 일본인 자본가들은 유벌에 적극 참여하거나 입목 불하 수량을 늘려갔다.

둘째 민간 제재업의 성장 요인은 다름 아닌 민간 수요의 증가였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후에 발생한 수요 외에도 1920년대의 경기변천 속에서 호황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 개발 수요 역시 증가세를 이었다.

셋째 민간업의 성장 속에 길러진 목재상공인 중심의 신의주 상공인의 역량은 신의주목재상조합 및 신의주상공회의소와 같은 상업기관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의 주된 구성원은 회사령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이후 조선에 건너와 공장을 설립한 일본인 자본가들이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주측 일본인 목재업자들과 공조 체제를 취하였는데 영림서 제재부 축소 및 폐지운동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였다.

넷째 일제 강점 초기에 신의주의 일본인 인구 유입이 조선인 인구 증가를 능가하였던 것은 압록강 상류의 목재 때문이었다. 또한 목재업이 왕성하여지면서 관·민영의 제재공장과 왕자제지회사조선공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조선인 제재공장의 성장은 더디고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조선공업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었다. 일본인 주도의 지배구조가 생산수단의 소유가 일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재업을 위시한 신의주 재계 내에 정착하였고, 대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총독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조건 없이는 사업 성공을 期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식민지 공업 발전에서 조선인 경제의 실질 소득 상승이나 조선인 입장에서의 근대적 역량 축적을 바랄 수 없게 만든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신의주의 목재·제재업의 발전과정에 천착하였다. 유벌고나 제재고의 변화에 따른 회사 설립 상황과 목재 관세 개정 운동에 치중하여 신의주의 제재업 발전이 갖는 개별적 특징을 신의주 경제의 성장이라는 역사상에서 살피는 것이 글의 목적이었다. 다만 자본축적 과정과 사용 電·動力의 크기 변화, 製材機 사용의 유무 등의 근대적 요소의 도입과 같은 사실을 깊이 분석하지 못하였고 역시 본고가 다루지 않은 일제강점기 말이나 해방 후의 임업 문제를 잘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신의주의 목재업 연구라는 개별 산업사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신의주의 전체 산업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본금 조달 방법이나 생산 구조의 해명 외에도 신의주 제 2의 산업인 정미업의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것을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參考文獻

1. 資料

1)조선총독부 자료

朝鮮總督府 編,『新義州市街地計劃決定理由書 : 區域·街路網·土地區劃整理地區』, 1937.

朝鮮總督府 編.『朝鮮貿易年表』.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編,『朝鮮林政計劃書』, 朝鮮總督府, 1927.

朝鮮總督府 編,『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 1910～1942.

朝鮮總督府殖産局,『朝鮮の林業』,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殖産局 編,『朝鮮工場名簿』, 京城朝鮮工業協會, 1936.

朝鮮總督府營林廠 編,『朝鮮總督府營林廠事業要覽』, 1912.

朝鮮總督府營林廠,『營林廠事業報告』, 1923.

2)지방지와 각종 통계 자료

國境文化協會,『新義州案內』, 1930.

京城商工會議所, 『朝鮮工業の現勢』 1934.

間城益次 編,『平壤案內』, 平壤 : 平壤商業會議所, 1920.

新義州府,『新義州産業要覽』, 1934.

新義州商工會議所 編,『新義州商工會議所月報』, 1928.

新義州商工會議所, 『新義州商工要覽(1942)・新義州商工案內(1940)』, 景仁文化社, 1989.

新義州稅關,『新義州港貿易統計槪覽』, 1927.

新義州稅關 編,「新義州港一斑」, 日本大分高等商業學校圖書分類目錄,『商事調査部』

新義州電氣株式會社 編,『新義州電氣株式會社二十五年史』, 新義州 : 新義州電氣株式會社, 1936.

張晟栻,『新義州大觀』, 新義州, 1931.

韓國地理風俗誌叢書 75,『平壤之現在及將來 ; 安東縣及新義州 ; 平安北道鄕土誌』, 景仁文化社, 1989(平壤名勝舊跡保存會 編,『平壤之現在及將來』, 平壤名勝舊跡保存會, 1915; 佐藤正二郎 編,『安東縣及新義州』, 圖書普及會, 1917; 平安北道敎育會 編,『平安北道

鄕土誌』, 平安北道敎育會, 1933;『平安北道統計年報』, 平安北道, 1929).
和田孝志,『新義州史』, 島田叢文館, 1921.

3)임업 관계 자료
鴨綠江採木公司 編.『鴨綠江林業誌』, 1919년
조선산림회, 임경빈 역,『朝鮮林業史』, 한국임정연구회, 산림청, 2000.
朝鮮山林會 編.『朝鮮林業逸誌』, 朝鮮山林會, 1933.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편, 생명의숲국민운동 역주,『조선의 임수』, 지오북, 2007
萩野敏雄, 裵在洙 編譯,『韓國近代林政史』, 한국목재신문사, 2001.

4)新聞・雜誌類
『東亞日報』,『朝鮮中央日報』,『鴨江日報』,『京城日報』,『朝鮮新聞』,『安東新報』,『時代日報』,『每日申報』,『西北學會月報』,『開闢』 등

5)기타 자료
朝鮮貿易協會 編,『朝鮮輸出貿易品調査表』, 朝鮮貿易協會, 1939.
朝鮮貿易協會 編,『朝鮮貿易史』, 民俗苑, 1992.
朝鮮總督府 編,『朝鮮貿易年表』, 朝鮮總督府, 1911～1941.

2. 論著

1)단행본
姜東鎭,『日帝의 韓國 侵略政策史 : 1920년대를 中心으로』, 한길사, 1980.
金泰雄,『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 아카넷, 2012.
董宣熺,『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裵在洙,『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서울 : 임업연구원, 2001.
孫禎睦,『(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 硏究 : 開港場·開市場·祖界 居留地』, 一志社, 1982, 1984.
_____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硏究』, 一志社, 1986.
_____ ,『日帝强占期 都市計劃硏究』, 일지사, 1990.

孫禎睦,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甲午更張~日帝强占期-』, 일지사, 1992.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1600~1987)』, 일조각, 2010.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정연태, 『한국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 : 장기근대사론을 제기하며』, 푸른역사, 2011.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 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崔柄澤,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 푸른역사, 2010.
許粹烈, 『개발 없는 개발-일제 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11.
하시야 히로시,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의 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4.

2)論文
姜英心, 「일제 영림창의 삼림수탈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22, 1995년.
_____ , 「일제의 한국삼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 「日帝시기 戰時(1937년～1945년) 林政하에서의 삼림수탈」,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02, 1998.
강정원 「일제 임야조사사업기 김해지역의 국유림 분쟁」,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김경남, 「한말・일제초기 조선본점기업 자본가네트워크의 형성」,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12, 2003.
김영정, 「일제시대의 도시성장-군산시 사례-」, 한국사회학회 , 『한국사회학』 30(1), 1996.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회의와 그 내용」,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20, 2011.
金泰雄,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_____ , 「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孫禎睦,「日帝下 化學工業都市 興南에 관한 硏究 (上・下)」,『한국학보』, 16(3), 1990.
배재수,「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제의 한국 국유림정책에 관한 硏究-조선임정계획서(1926) 중 要存國有林 關聯計劃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韓國林學會誌』8(3), 1996.
_____ , 「조선전기 국용 임산물의 생산지」, 한국임학회,『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2004(0), 2004.
_____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경제사학』38, 2005.
배재수・윤여창,「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식민지 산림정책과 일본자본의 침투과정」, 한국산림경제학회,『산림경제연구』2(1), 1994.
宋圭振,「일제하 조선의 무역정책과 식민지무역구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아세아연구』105, 2001
吳美一,「1910년대 중・후반 조선인 산업자본의 형성」,『한국근현대사연구』20, 2002.
_____ ,「일제시기 조선인 자본가층의 결집과 '지역번영' 단체의 조직 : 1920년대 원산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171, 2015.
이우연, 「임업」,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은자·오미일,「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史叢』79, 高麗大學校 歷史硏究所, 2013.
池秀傑,「1930年代 前半期 부르주아 民族主義者의 '民族經濟建設戰略'-朝鮮工業化와 엔블럭 再編政策에 대한 認識을 中心으로」,『國史館論叢』51, 國史編纂委員會, 1994.
崔柄澤, 1908~1945년 일제의 임야소유권 정리와 민유림운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임업 동원책과 삼림자원공출」,『韓國史學報』32, 2008.
_____,「조선총독부의 화전 정리 사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韓國文化』58, 2012.
許粹烈,「日帝下 韓國에 있어서 植民地的工業의 性格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附　錄

<부표 1> 신의주 민간제재공장 현황(1910~1931년)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본금2	통계연보 11년	통계연보 14년	신의주안내(1930)	신의주대관(1931.5)
1	1910	小山工場	小山庄三						
2	1911.11	丸正製材工場		5,000 (1911)	6,000 (1914)	O	O		
3	1912.9.	淺見製材所	淺見市次郎	30,000 (1914) 58,000 (1929.10)			O	O	O
4	1916	三共製材所	孫昌潤						
5	1919.5.	三葉商會製材所							O
6	1920.5.	滿鮮製函木材會社	佐藤松四郎					O(만선제함주식회사지점)	O(만선제함목재회사지점)
7	1921.9.	丸中製材所	中込精一					O(환중상회)	O(환중재목점)
8	1925.6.	渡邊製材所(柴田製材所의前身)	柴田祐光						
9	1925.6.	柴田製材所	柴田祐光					O(柴田材木店)	O
10	1925.7.	鴨江木材株式會社製材工場	横江重助	250,000				O	O
11	1926.2.	武內製材所	武內吉之助						O
12	1926.3.	新義州製材所	川口勘次郎						O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본금2	통계연보 11년	통계연보 14년	신의주안내 (1930)	신의주대관 (1931.5)
13		安藤製材所							O
14	1927. 8.	昭和木材商會	高木延藏	10,000 (1929)				O	O
15	1928. 5.	平安木材株式會社製材工場	평안목재주식회사					O	O
16	1928. 9.	近藤製材所	近藤淸一					O(근등상회)	O
17	1929. 10.	村上洋行中島製材所							
18	1929. 5.	義昌製材所	宋寬哲					O(의창재목점)	O(의창제재소)
19	1929. 8.	長澤商事株式會社	長澤紀代司					O(장택상사합자회사)	O(株式會社)
20	1931. 4.	秋田商會木材株式會社新義州出張所	內田勇						
	공장수계					1공장	2공장	10공장	14공장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신의주안내』, 1930년, 69～70쪽, 『新義州大觀』, 1931년, 124~126쪽.

비고 : 자본금은 각 연도와 금액을 표시한 대로 따랐으며 출전에 따라 연도순으로 자본금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丸正製材工場의 경우 자본금 “1”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년판, 자본금 “2”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4년판에 근거한다.

<부표 2> 신의주 민간제재공장 현황(1932~1938년)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본금2	공장명부32년	공장명부34년	공장명부36년	신의주상공안내36년판	공장명부39년
1	1912.9.	淺見製材所	淺見市次郎	30,000(1914) 58,000(1929.10.)	200,000(1934)	O(합자회사천견제재소,1922.1.A)	O(합자회사천견제재소,1929.10.淺見末男,A)	O(합자회사천견제재소,1929.10.和田賢太郎,A)	O	O(합자회사천견제재소,1929.10.和田賢太郎,A)
2	1919.5.	三葉商會製材所		20,000(1933~1937)		O(匹田有年松,B)	O(합자회사三葉製材所,村上弘一,1931.4.B)	O(합자회사三葉製材所,村上弘一,1931.5.B)		
3	1920.5.	滿鮮製函木材會社	佐藤松四郎	10,000(1934)		O(만선제함목재회사지점,A)	O(만선제함목재주식회사지점,唐津鶴吉,A)	O(만선제함목재주식회사지점,宮本武郎,A)		
4	1921.9.	丸中製材所	中込精一	50,000(1934)		O(환중상회제재소,休業,中込眞次)	O(합자회사환중상회제재소,,中込精一,1920.10.A)	O(합자회사환중제재소,,中込精一,1920.10.A)	O(합자회사환중상회제재소)	O(합자회사환중제재소,,中込精一,1920.10.A)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본금2	공장명부32년	공장명부34년	공장명부36년	신의주상공안내36년판	공장명부39년
5	1925. 6.	柴田製材所	柴田祐光	10,000 (1934)	150,000 (1936)	O(柴田製材所, A)	O(1926. 7. A)	O(B)	O	O(B)
6	1925. 7.	鴨江木材株式會社製材工場	横江重助	250,000	500,000 (1936)	O(B)	O(B)	O(B)	O	O(横江知通,C)
7	1926. 2.	武內製材所	武內吉之助	10,000 (1934)	40,000 (1935 ~1941)	O(A)	O(武內吉之介, A)	O(1926. 9. 武內吉之介,A)	O	O(1926. 9. 武內吉之介,A)
8	1926. 3.	新義州製材所	川口勘次郎	2,500 (1934)	28,000 (1935)	O(A)	O(A)			
9		安藤製材所								
10	1927. 8.	昭和木材商會	高木延藏	10,000 (1929~1933)				O(소화목재합자회사, 高木延藏,1915.8.A)	O	O(소화목재합자회사, 高木延藏,1915.8.A)
11	1928. 5.	平安木材株式會社製材工場	평안목재주식회사	500,000 (1934~1936)		O(C)	O(田中喜一,C)	O(田中喜一,C)	O	O(田中喜一,C)
12	1928. 9.	近藤製材所	近藤清一	70,000 (1934)		O(A)	O(근등상점제재소, A)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 본 금2	공장명부32년	공장명부34년	공 장 명 부 36년	신의주상공안내36년판	공 장 명 부 39년
13	1929. 10.	村上洋行中島製材所			100,000 (1936)	O(村上四郎,A)	O(村上四郎,B)	O(村上四郎,A)	O	
14	1929. 5.	義昌製材所	宋寬哲	10,000 (1934)	50,000 (1936)	O(李魯洙,A)		O(송관철, A)	O	O(1933. 4. 송관철, A)
15	1929. 8.	長澤商事株式會社	長澤紀代司	10,000 (1933)	50,000 (1936)	O (장택상사합자회사, A)	O (장택목재합자회사,1932.9.長澤點男,B)	O (장택목재합자회사,1932.5.長澤照男, B)	O	O(장택목재합자회사, 1932.8. 長澤照男,B)
16	1931. 4.	秋田商會木材株式會社新義州出張所	內田勇		99,000 (1937) 66,000 (1939)				O	O(1936. 6. B)
17	1932. 8.	株式會社大二商會安東出張所中島工場			100,000 (1936)		O(田所喜一,B)	O(田所喜一,A)	O	
18	1933. 5.	合資會社協同製材所	金亨洙	45,000 (1935)	40,000 (1936)			O(金亨洙, A)	O	O(金亨洙,B)

연번	설립연월	공장명	설립자	자본금1	자본금2	공장명부32년	공장명부34년	공장명부36년	신의주상공안내36년판	공장명부39년
19	1934. 9.	東洋製材所			10,000 (1936)			O(1924.3.金永基, A)	O	O(1934.9. 金永基,휴업)
20	1935. 1.	永安製材所	車文國		100,000 (1936)				O	O(車文國,B)
21	1935. 6.	中村洋行製材所	中村得一		30,000 (1936)				O(중촌제재소)	
22	1935. 6.	(長)二平製材所	村上弘一						O	O(1922. 7. A)
23	1936. 6.	旭木材株式會社	丸田信太郎	100,000 (1937)					O	O(旭木材株式會社,B)
	공장수계					12공장 (휴업1)	13공장	15공장	18공장	15공장(휴업1)

출전 : 『朝鮮工場名簿』 각년판,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京城商工會議所, 『朝鮮工業の現勢(上)』 1934년, 13~14쪽. 新義州電氣株式會社, 『新義州電氣株式會社二十五年史』, 1936년, 82~83쪽.

비고 : ① 위 책의 자료들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창업연월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첫 칸에 나타내었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 )안에 나타내었다.

② 설립자명이 상호 다른 경우에도 각 자료가 표시한 설립자명을 ( )안에 적었다. 三葉商會製材所의 경우 『新義州大觀』에서는 설립자 村上弘一으로 표시하였으나 『朝鮮工場名簿』(1932년판)는 匹田有年松으로 나타나 각각 표시하였다.

③ 자본금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연도와 금액을 표시한 대로 따랐으며 연도가 없는 것은 『朝鮮工業の現勢(上)』(1934), 『新義州電氣株式會社二十五年史』(1936)에 따르고 연도를 ( )안에 밝혔다.

④ 직공 수에 의한 공장 A~C표시는 『朝鮮工場名簿』의 방식을 따랐다.

Abstract

The Change of the Timber Industry and the Campaign of Timber Dealer Guild in Sinuiju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910~1936)

Lee, Mi Kyung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uiju was a city of timber. The reason the Japanese's capitals and population increase suddenly spiked after 1907, crea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Office, was the lumber floated downstream from the upper Amnok river and gathered in Sinuiju. As the construction of Kyong-Eui line as a start, Sinuiju became an important spot in the Korean border, thanks to the advanced development of its railway and transportation.

Since the “Company Act”(Hoesa－ryŏng, 會社令) was abolished in 1920, Japanese large-caps focused on the forestry exploit of the Amnok River basin. “The Forest Management Office”(Yŏnglim-chang/Yŏnglim-sŏ) began to take government enterprise orders preferentially while increasing its number of direct management sawmills. “O－ji paper Joseon factory(王子製紙朝鮮工場)” preoccupied half of the Forest Management Office’s timber. Although the other half were supposed to be disposed, timber for private lumber factories decreased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he Forest Management Office’s lumber business. Under this background, private companies participated in direct lumbering, floating lumber downstream and increased their production.

Strengthened by the upphase of World War I and the support of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the private timber merchants of Sinuiju steadily increased sales. Lumbermen started to lower their unit cost of production and close the distance between the Forest Management Office’s direct management factory and them by increasing their lumber production capabili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growth of private lumber industries that countervailed the produc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Office and deals with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s policy to dominate timber resources. This paper plans to approach the history of modern-day Sinuiju through lumber production, which was the dominant business back then, and reveals the features of growth of capitalism in Sinuiju.

This paper will divide the timeline with 1931, the year the Manchurian Incident took place, a standard point. During early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s the first half,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guo as the second. It will observe the

demands of private lumber industries, and the efforts of associated businessmen to materialize them. Also, it investigates the effect those demands had on Korean lumber industry capitalists.

In the late 1920's, having lumber production capacity reached the point of self-sufficiency in Korea, it had been tried to impose tariffs on timber imported from "Dandong"(安東, 안동), which had been custom free. This can be seen as the combined result of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s policy and the effort of timber dealers of Sinuiju. The latter was because the low price of Dandong's commodities lowered the competitive power of Sinuiju's commodities, and decreased profit for merchants of Sinuiju.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guo, the tariff revision movement came to face a new situation. Due to sudden increase of demand for Manchuria development, Korea turned into a one giant lumber supplier, which resulted in protests from lumber industries, who could not get enough material, and timber dealers, who were unable to obtain products to sell. Unsurprisingly, the ones who petitioned for tariffs in Manchuria be lowered to match those in Japan were lumber industry-related capitalists.

Meanwhile, when centripetal business custom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st Management Office's fourth factory, Sinuiju's Timber Dealer Guild started a petition against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Dandong's lumber industrialists, the Timber Dealer Guild's former rival, also supported this petition. It clearly shows how much of the lumber market was exclusively controlled by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In fact, it almost was a monopoly.

The private lumber industry capitalists, who strengthened their capabilities during the past movements and petitions, established Sinuiju Timber Dealer's Guild and other craft guild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e ones who were leading were Japanese capitalists, who were superior to Korean capitalists regarding the scale of capital and sales tax amount. The lower-middle-class capital-built industries could just barely follow the Japanese large-caps. As a result, the most benefits of lumber industry growth were taken by the Japanese capitalists. Even until the late 1920's Korean lumber factories could not be built and few were in the early 1930's.

Since Sinuiju was developed to supply lumber, most of Sinuiju's population were Korean laborers. However, all Korean laborers, no matter what their job was, suffered from unfairly low pay. They were discriminated from Japanese workers and forced to compete with the Chinese laborers, who had immigrated to Sinuiju. To summarize, there work condition was inferior to others.

Therefore, utilizing its abundant forest resources, quick water transportation, and cheap, easy-to-get labor, Sinuiju's lumber industry led all other industries. Following Korea's industrialization, when wartime demand was high, late 1930's Japanese large-caps merged and abolished smaller Korean factories than themselves, resulting in large-scale, mass-producing factories.

Keywords : Sinuiju, Amnok river, lumbering, "Yŏnglim-chang" ("Yŏnglim-sŏ", Forest management office), timber dealer guild, timber tariff

Student number: 2012-21392